

SARAH CHANG



VIRTUOSI

December 2022
Vol.372

12

COVER STORY

사라 장 & 비르투오지

COLUMN

안전한 공연장을 위하여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카페 봄

베시온나에서

비올레타를 만나다

예술의초대 창간 30주년 기념 렉처콘서트



유명 오페라 극장과 오페라 축제 이야기

2024년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전 세계 주요 오페라하우스와 저마다 다른 색깔을 지닌 오페라축제를 소개하는 렉처콘서트

2022. 12. 7. WED 8PM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전석 초대 (정기회원 선착순 예매)



| 강사 | 이상훈



| 소프라노 | 박현진



| 테너 | 김준연



| 바리톤 | 강경원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마스

2022. 12. 23. 금 ~ 24. 토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원작 | 찰스 디킨즈 재구성/작사/연출 | 김지용 작곡/편곡 | 백현주 지휘 | 이기선 안무 | 김미란, 홍충민
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입장료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4인가족 30% 할인(관람연령 만5세 이상) 예매 및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www.bscc.or.kr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30M "7번가피자" 앞 → 문화회관 주차장 • 출발시간 | 문화회관행 | 월~금 19:00/19:30(공연 있는 날에 한함) | 대연역행 | 공연종료 후(1회 운행)

오케스트라와 K-POP시리즈 I

- 트로트 (Trot) -

2022 을숙도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공연



12.17. **강진**
(토)오후5시

12.20. **진성**
(화)오후7시30분

12.23. **홍진영**
(금)오후7시30분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을숙도문화회관은
내년에도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STANDING EGG



스탠딩에그 × 소란 콘서트

2022. 12. 17^{SAT} 6^{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티켓 |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 예매 |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bscc.or.kr |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2022

Musical Gala


뮤지컬 갈라
송년콘서트
in 영도



출연

뮤지컬 배우 민우혁, 소냐, 이건명

2022. 12. 9. FRI 7:30PM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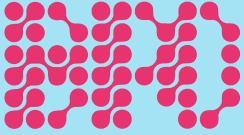
주최·주관  문화도시원주
영도문화예술회관 관람료 일반 4만원, 정기회원 3만원, VIP 2만원

예매 영도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YES 24 문의 051-419-5571~4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595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WITH YOU

동반자

지휘 최수열
소프라노 황수미
호른 이석준

브리튼 / 세레나데
엘가 / 수수께끼 변주곡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창단60주년
부산시립교향악단

티켓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문의 061-607-6000(ARS 1번)

www.bscc.or.kr

CONTENTS

12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초대 December 2022 Vol.372

2022년 12월호 통권 372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정필
편집인 김명숙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2년 11월 25일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 10 **Column**
안전한 공연장을 위하여
- 12 **Cover Story**
사라 장 & 비르투오지
뮤지컬 '유진과 유진'
- 18 **거꾸로 보는 미술사 ⑩**
현대예술의 후원자들 2
'한국의 컬렉터'
- 22 **세계오페라축제 ⑩**
발트 3국의 최초의 오페라 축제
리가 오페라 축제 Riga Opera Festival
- 26 **골목에서 만나다_생활 속 문화공간**
한국의 르 프로코프를 꿈꾼다
'카페 봄'
- 28 **Preview**
- 32 **Review**
- 40 **Program Guide**
- 56 **BSCC News**
- 58 **New Book**

SUN	MON	TUE	WED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양평</p>	<p>전서진</p> <p>제48회 부산미술대전 11월 14일(월)-12월 3일(토) (사)부산미술협회 632-2400</p>		
<p>4</p> <p>부산솔리스트앙상블 제22회 정기연주회 19:00 대 6만원·4만원·2만원 부산솔리스트앙상블(010-7315-7352)</p> <p>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줄인(Zoom-In)' 17:00 첼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5</p>	<p>6</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9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19:30 대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2 손한별의 음악공방 IV 'Modern Texture' 19:30 첼 손한별(010-6645-1564)</p>	<p>7</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 11:00, 14:00 중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시 (재)부산문화회관 발행 용 30주년 기념 레처콘서트 첼 초대/(재)부산문화회</p>
<p>11</p> <p>아르스 콤팩트 연주회 '아르스와 떠나는 북유럽 음악여행' 17:00 중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D.U. Chamber Orchestra '겨울의 꽃&새로운 시작' 19:30 첼 D.U. 챔버 오케스트라(010-8865-1705)</p>	<p>12</p>	<p>13</p> <p>최성수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19:30 대 10만원·8만원·6만원·4만원/부산문화(1600-1803) 이태석 신부 탄생 60주년 기념 용마코러스 제6회 정기연주회 '슈크란 바바' 19:30 중 용마코러스(010-9667-7474) 진혜빈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첼 무료/다루예술기획(010-3795-3009)</p>	<p>14</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 노래로 하나되' 17:00 대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2 강태홍의 소리 19:30 중 (사)강태홍류가야금산악</p>
<p>18</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사라장&베르투오자' 17:00 대 13만원·11만원·9만원·7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5회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 중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010-2831-2836)</p> <p>한가지꿈음악연구소 정기연주회 '겨울밤, 낭만을 수놓다' 17:00 첼 초대/한가지꿈음악연구소(783-4206)</p>	<p>19</p>	<p>20</p> <p>UKO오케스트라 앙상블의 밤 19:30 중 UKO오케스트라(988-3087)</p>	<p>21</p> <p>2022 동아대학교 음악학 중 동아대학교(200-1700)</p>
<p>25</p>	<p>26</p>	<p>27</p> <p>다매체 공간 몰입형 콘서트_생상 '동물의 사육제' 19:00 대 뮤직스토리움(010-4530-9561) 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 제19회 정기연주회 19:30 중 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513-5594)</p>	<p>28</p> <p>제8회 IYSO Winter Ch 중 (주)다소니(328-9999) 제9회 에델현악사중주단 첼 전석 2만원/에델현악사</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p>1</p> <p>◆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전통의 맛' 19:30 대 1만원·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1235회 MBC목요음악회_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제33회 정기연주회 '아틀란틱으로부터' 19:30 첼 전석 1만원 (사)문화도시부산네트웍(760-1494)</p>	<p>2</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차이콥스키'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TDC앙상블 정기연주회 '고전을 담은 낭만 실내악' 19:30 첼 전석 1만원/TDC앙상블(010-9332-4207)</p>	<p>3</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시네마 필름 콘서트- 러브레터&냉정과 열정 사이' 17:00 대 6만원·4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부산시립무용단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디딤 & STEP' 홀로홀출 Vol.2 '애도와 기원의 마음으로' 17:0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10회 김윤희 플루트 독주회 15:00 첼 전석 2만원/The Yoon(010-6516-9838)</p>
7	<p>8</p> <p>◆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50주년 기념공연 및 제188회 정기연주회 '하이든 천지창조' 19:30 대 2만원·1만원·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능생을 위한 음악회 '얼썩' 11:00 중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36, 3113)</p>	<p>9</p> <p>K-ARTS 무용단 부산공연 'Experiment No.1' 19:00 대 무료/한예중 무용원 공연기획실(02-746-9354)</p> <p>2022 남구 오륙도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 중 오륙도여성합창단(010-3592-8225)</p> <p>고신클라비어 제3회 정기연주회 19:30 첼 초대/고신클라비어(010-3311-0153)</p>	<p>10</p> <p>브라부라 색소폰앙상블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 18:00 중 브라부라 색소폰앙상블(010-5502-7982)</p> <p>부산피아노트리오 정기연주회 '낭만을 향하여' 17:00 첼 2만원·1만원/부산피아노트리오(010-4400-7038)</p>
4	<p>15</p> <p>다뉴앙상블 청소년활성회 기획공연 '영스타' 19:30 중 더 뉴 앙상블(010-3569-0607)</p>	<p>16</p> <p>어린이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16:00 대 동그라미그리기(1577-4868)</p> <p>부산 YWCA 여성합창단 제16회 정기연주회 19:30 중 전석 1만원/아트락(010-5468-4658)</p> <p>The_Studio International Artist Series 1 '3人 3色' 19:30 첼 the_studio(010-5447-9163)</p>	<p>17</p> <p>어린이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11:00, 14:00 대 동그라미그리기(1577-4868)</p> <p>제7회 유엔평화기념관합창단 정기연주회 17:00 중 유엔평화기념관합창단(010-2579-0426)</p>
11	<p>22</p> <p>◆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포니야' 19:30 중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치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제2회 트리오 파첼 정기연주회' 17:00 첼 초대/트리오 파첼(010-3885-6600)</p>	<p>23</p> <p>◆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5회 정기연주회 '동만자' 19:30 중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연세대학교 동문음악회 in 부산 '한국가곡과 아리아의 밤' 19:00 첼 yj클래식스(010-6307-6885)</p>	<p>24</p> <p>◆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15:00,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8	<p>29</p>	<p>30</p> <p>부산가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대 부산가톨릭합창단(010-7169-0404)</p> <p>부산발레시어터 '호두까기 인형' 19:30 중 6만원·4만원/부산발레시어터(513-7779)</p>	<p>31</p> <p>부산발레시어터 '호두까기 인형' 14:00, 18:00 중 6만원·4만원/부산발레시어터(513-7779)</p> <p>곽소정 피아노 독주회 15:00 첼 곽소정(010-7155-7034)</p>
arity Concert 19:00) 정기연주회 19:30 중주단(010-5880-3996)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사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ED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2022 한국서도예술협회 회원전 11월 29일(화)-12월 3일(토) 전시실1, 2 (사)한국서도예술협회 441-7081</p> <p>제31회 동협전 12월 6일(화)-12월 10일(토) 전시실1 부산광역시 동구청 440-4065</p> <p>경상대학교 IT콘텐츠와 디지털디자인 졸업작품전 12월 6일(화)-12월 10일(토) 전시실2 이명재 010-2295-6334</p>	<p>제16회 대한민국 한서미술대전 전국 공모전 12월 13일(화)-12월 17일(토) 전시실1, 2 (사)한서미술협회 808-2022</p> <p>제25회 효원사우회 사진전 12월 20일(화)-12월 25일(일) 전시실1 효원사우회 640-7428</p> <p>제주관광 SNS공모전 당선작 전시회 12월 20일(화)-12월 30일(금) 전시실2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064-741-8763</p>	<p>지천년을 꿈꾸다 12월 27일(화)-12월 30일(금) 전시회 고현갤러리 747-3825</p>
<p>4</p> <p>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2022 부산국악축제 2 17:00 ☎ (사)부산국악협회(010-3130-1353)</p>	<p>5</p>	<p>6</p> <p>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KBS 전국노래자랑 14:00 ☎ 부산동구청(440-4891)</p>	<p>7</p> <p>제10회 부산불교방송 가 ☎ BBS부산불교방송(7 아세안 어린이공연 시리 '개굴개굴 고래고래' 11: ☎ 전석 1만원(48개월 KF아세안문화원(77</p>
<p>11</p> <p>뮤지컬 '브레드이발소-대결! 최고의 이발사' 11:00, 14:00, 16:30 ☎ 6만원·5만원/(주)티엔에스컴퍼니(1544-1555) 뮤지컬 '알사탕' 11:00, 14:00, 16:00 ☎ 전석 5만원(24개월 이상 관람) ㈜쌍크브릿지(1533-7244)</p>	<p>12</p>	<p>13</p> <p>한국-과테말라 수교 60주년 기념 제8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여행 19:30 ☎ (주)KNN(010-3560-1077)</p>	<p>14</p> <p>2022 꿈의 오케스트라 ☎ 부산동구문화원(46</p>
<p>18</p> <p>뮤지컬 '알사탕' 11:00, 14:00, 16:00 ☎ 전석 5만원(24개월 이상 관람) ㈜쌍크브릿지(1533-7244)</p>	<p>19</p>	<p>20</p> <p>제12회 실버종합예술제 13:30 ☎ 대한노인회 부산연합(861-0119)</p>	<p>21</p>
<p>25</p> <p>가족뮤지컬 '엄마까투리-마트에 간 공지' 11:00, 14:00, 16:30 ☎ 전석 5만5천원 ㈜더화랑이엔티(1800-6567)</p>	<p>26</p>	<p>27</p>	<p>28</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수요일	1	2	3
1	7	8	10
4	15	16	17
11	22	23	24
18	29	30	31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안전한 공연장을 위하여

이상현 춤 비평가

평온할 줄 알았던 일요일 새벽에 날아든 비보에 넋을 놓았다. 뉴스 화면에서 희생자 수가 하나둘 늘어날 때 2014년 4월이 떠올랐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겨우 8년밖에 안 됐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 많은 생명이 비명에 스러지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연히 해야 했던 조치들이 빠졌고, 그렇게 그날은 다른 날이 되었다. 비극은 대부분 일상에서 어이없게 일어난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덮치는 비극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공연장도 그 중 한 곳이다. 공연장은 어둡고 여러 장치가 밀집해 있으며, 공연 내용에 따라 소품 위치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대관으로 공연을 준비하는 작업자는 대부분 시간에 쫓겨 안전 점검을 할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외 공연장 안전사고 몇 건을 살펴보자.

1972년 세종문화회관의 전신인 서울시민회관에서 조명 장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51명이 사망하고 76명이 다쳤다. 2007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 <라보엠> 공연 중 무대장치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큰 인사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관객과 출연진 1,800여 명이 대피하고 소방차 32대가 출동했다. 화재 신고가 늦었고, 객석 안내 방송이 없었다는 사실 등 미숙한 조치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 사고로 해당 극장은 1년 뒤에 재개관했다. 2012년 고양시 한 공연장에서 공연 준비하던 스태프(staff)의 머리 위로 무대 장치가 떨어져 중태에 빠진 사고도 있었다. 2018년 경북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 준비로 페인트 작업을 하던 조연출이



무대 6.5m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은 뒤 사망했다. 사고 당시 무대는 가운데가 안전난간 없이 뚫려 있었다. 이 사고로 무대감독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미국에서 세계적 합합 스타 트래비스 스코트의 콘서트장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고, 불과 몇 달 전인 2022년 7월 홍콩 한 공연장에서 공연 중 대형 스크린이 떨어져 댄서 두 명이 다쳤다. 잇을 만하면 공연 관련사고 소식이 전해진다. 여기서 언급한 사고 말고도 관객 수를 예측할 수 없는 대형 무료 공연에서 관객 통제 실패 때문에 발생한 압사 및 부상 사고는 이전부터 종종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공연장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안전 규정과 사고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물리적 환경 개선과 공연장 종사자 교육이 이루어졌다. 2014년 성남시에서 야외 공연 도중 사람들이 올라가 있던 환풍구가 무너져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연장 주변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공연법이 상당히 개정됐다. 안전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하는 규정도 이때 신설됐다. 현행 공연법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연장 안전 관련 규정은 세부 조항에 허점이 많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 관리자의 겸직을 금지하는데, 공연법에는 관련 규정 자체가 없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질 사람만 명시하는 수준이다. 부산의 경우 국립부산국악원에 전담 인력인 무대안전관리관이 있고, 문화회관은 무대예술팀 팀장이 안전관리총괄, 무대기계감독과 무대감독이 안전관리담당자를 겸임하고 있다. 전담 인력 없이 무대 전문 인력이 겸임하는 상황은 서울 국립극장을 제외한 전국 공공 공연장이 마찬가지이다. 무대 전문 인력도 기본적으로 안전에 민감하고, 관련 지식이 있다. 그런데 무대는 기계, 조명, 음향, 세트, 사람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 외에 다른 것의 안전 요소를

하나하나 살피기 어렵다. 안전관리 전담 인력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전체를 살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겸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형 공공 공연장이 이런데, 사설 공연장은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상황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다. 코로나로 공연계가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앞으로 공연이 늘어날 것은 당연하다. 공공 공연장부터 안전관리 전담 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소형 공연장도 공연장 사정에 맞는 안전 대책을 구체적으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

갑갑하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심신을 재충전할 감동과 신명 그리고 판타지를 기대하고 공연장을 찾는 관객을 위한 안전한 공연장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예술가는 최선을 다해 작품을 선보이고, 무대감독은 공연의 흐름을 체크하고, 조명, 음향, 무대 기계 담당도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한다. 하우스 매니저가 로비와 객석에서 관객을 통제하고, 무대 안전 관리 전담 인력은 무대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 공연장 곳곳에서 이중 삼중으로 안전 상태를 체크해 작은 사고 하나 없이 공연을 마칠 수 있는 곳 말이다. 수백 번 반복해서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것이 안전에 관한 사전 조치이다. 대부분의 사고는 한두 가지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다. ‘그때 그렇게만 했어도!’라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다. 행복한 시간을 바라는 관객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 공연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공연이 끝나고 출연자와 관객, 공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공연 예술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길이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후 한겨레신문 ‘거리의 칼럼’에 소설가 김훈은 이렇게 썼다. “우리는 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넘어진 자리에서 거듭 넘어지는가. 우리는 왜 뻥이 보이는 길을 가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날마다 도루묵이 되는가.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우리는 왜 이런가.” 김훈의 글이 머리를 때린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사라 장 & 비르투오지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VIP 130,000원 R 110,000원
S 90,000원 A 7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SARAH CHANG

사라 장은 내가 들어본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최고의 이상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다
- 예후디 메뉴인

Program

비탈리
샤콘느 g단조

바흐
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장조, BWV 1043

비발디
사계

*이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유진

이한나

심준호

성민제

세계 최정상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이 부산을 찾는다. 특히 3년만에 내한하는 이번 무대에서 사라 장은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 비올리니스트 이한나, 첼리스트 심준호, 더블베이스 성민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솔로리스트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수준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신동에서 거장으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한국이름 장영주)은 1990년 만 8세의 나이에 거장 주빈 메타가 이끄는 뉴욕 필과의 협연으로 세계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듬해인 1991년 EMI 레이블과 계약하며 세계 최연소 레코딩 기록을 갖게 되었으며, 1994년 13세의 나이로 베를린 필 데뷔무대를 가졌다. 그녀는 최초로 베를린 필과 3번의 레코딩 작업을 한 유일한 한국인이며, 1995년에는 최연소 나이로 에이버리 피셔 캐리어 그랜트 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뿐 아니라 세계 음악계에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자크 펄만, 길 샬람, 미도리의 스승이었던 도로시 딜레이를 사사했으며, 전설적인 거장 아이작 스톤의 바이올린을 물려받았다.

사라 장은 그간 EMI를 통해 20여개의 앨범을 발매하였으며,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뉴욕 필하모닉,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세계 탑 오케스트라와 쿠르트 마주어, 콜린 데이비스, 리카르도 무티, 주빈 메타, 사이먼 래틀, 구스타보 두다멜, 샤를 뒤투아, 마리스 얀손스, 발레리 게르기에프 등의 전설적인 거장 지휘자들과 함께 연주하는 등 다른 연주자들이 평생을 활동해도 이루지 못할 음악적 성과를 이루어 왔다. '신동의 아이콘'

이었던 사라 장은 어느덧 '거장'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는 대가로 성장했으며, 2018 Classic FM이 선정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25'에도 선정되는 등 여전히 세계적인 명성을 증명하고 있다.

슈퍼스타 바이올리니스트와 젊은 거장들이 선보이는 화려한 무대

지난 2019년, 7년만에 열린 리사이틀 투어에서 전국 8개 공연장을 매진시키며 여전한 카리스마와 인기를 확인시켰던 사라 장은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솔리스트들로 구성된 체임버 앙상블과 함께, 솔로 외에도 합주, 협주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그가 이번 공연에서 선택한 프로그램은 비탈리의 '샤콘느 g단조'와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 1043', 그리고 비발디의 '사계'로,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18세기 아름다운 바로크 음악을 선물과도 같은 연말무대를 선사한다.

주로 로맨틱하고 화려한 곡을 연주해왔지만, 비탈리의 '샤콘느'는 사라 장의 연주를 떠올릴만큼 그의 주된 레퍼토리 중 하나이다. 비발디의 '사계'는 사라 장이 지난 2007년, 데뷔 15년 만에 낸 첫 바로크 앨범의 프로그램으로, 해당 앨범은 지금까지도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은 1997년 아이작 스톤과 함께 연주한 뒤 오랜만에 국내 무대에서 선보이는 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을 비롯한 후배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한다.

사라 장은 경이롭다.
그녀의 풍부하고 아름다운 소리와
흡잡을데 없는 연주, 절도있는 표현은
그녀의 음악을 완벽 하게 한다.
한 곡으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은 들을만한 가치가 있다.

- 뉴욕타임즈

네가 겪은 그 일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네게 무슨 일이 있었든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실을 잊지 말렴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MUSICAL

유진과 유진

- 12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2:00, 7:00
-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R석 5만원, S석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세상의 많은 '유진'과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섬세한 공감과 따뜻한 위로, 뮤지컬 '유진과 유진'이 부산을 찾는다.

한국 본격 청소년문학의 문을 연 이금이 작가의 대표작이자 수많은 독자와 울고 웃은 레전드 스테디셀러인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유진과 유진'은 아동 성폭력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지나치게 무겁지도, 그렇다고 가볍게 다루지도 않으면서 큰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초연 당시에는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하며 관객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았으며, 제6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는 극본상과 작곡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유진과 유진'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유치원 시절 성폭력을 겪은 두 명의 유진이다. 알아주는 모범생 인생을 살며 조용히 살아온 작은 유진. 그리고 공부와는 담쌓고 살지만 털털하고 구김없는 큰 유진. 역일 일 없을 것 같던 두 아이는 중학생이 되어 같은 반 친구로 재회한다. 한 아이는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나,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떠오르면서 두 유진의 삶에 파장을 일으키고 각자가 가진 상처를 마주하기 시작한다.

'유진과 유진'은 유진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유진들에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오늘날, 이 작품은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상처를 모아 지은 날개'마저 꺾이곤 하는 청소년들이 날갯짓하도록 돕는 공감 어린 응원이다.

특히 이 작품은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의 첫 뮤지컬 작곡 도전작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상사화' '홍연' 등의 대표곡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안예은의 독특한 감성은 뮤지컬이라는 장르와 만나 귀에 쏙쏙 박히는 멜로디에 두 유진의 이야기를 담은 넘버로 재탄생했다. 또한, 흔치 않은 여성 2인극으로 배우 두 명이 10대 유진, 30대 유진, 유진의 엄마 등 일인 다역을 하며 무대를 채운다.

부산관광과는 처음 만나는 이번 무대에서는 초연을 빛내주었던 탄탄한 실력의 임찬민 배우와 톡톡 튀는 매력으로 새로운 유진을 보여준 뉴캐스트 흥나현 배우가 무대에 선다.



세상 모든 '유진'을 위한 위로

이슬희 뮤지컬 매거진 <더뮤지컬> 기자

여기 두 소녀가 있다. 유진, 그리고 유진. 같은 이름, 같은 상처를 지녔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꺼내 놓고, 상대방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서로의 존재를 오롯이 받아들이며 서로를 치유한다. 그렇게 가슴 깊은 곳에 잇을 수 없는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유진'에게도 위로를 안긴다. 뮤지컬 <유진과 유진>의 이야기다.

<유진과 유진>이 관객에게 손 내미는 법

<유진과 유진>은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창작 뮤지컬이다. 소설은 '알로하, 나의 엄마들', '너도 하늘 말나리아' 등 여성과 청소년의 이야기를 섬세하고 깊이 있게 그려내 호평 받는 이금이 작가의 대표작이다. 2004년 발간되어 20년 가까이 수많은 청소년에게 위로를 안긴 작품인 만큼 소설이 무대화된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고, 2021년 초연 당시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다.

작품의 주인공은 중학교 2학년이 된 첫 날, 학교에서 만나게 된 두 명의 유진이다. 두 사람은 이름이 같은 탓에 '큰 유진', '작은 유진'으로 나누어 불리게 된다. 작은 유진은 자신을 이미 알고 있다며 친근하게 다가오는 큰 유진이 당황스러워 외면한다. 하지만 그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기억 한편에 숨겨져 있던 아픔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다. 큰 유진과 작은 유진이 유치원을 함께 다니던 시절 유치원 원장이 가한 성폭력이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기자 작은 유진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 기억을 지운 채 살아왔던 것이다. 갑자기 마주하게 된 진실로 인해 혼란에 빠진 작은 유진이 방향하자 큰 유진이 그의 곁을 지키고, 마냥 밝던 큰 유진이 과거 사건으로 인한 편견의 시선으로 괴로워하자 작은 유진이 그의 마음을 보듬는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아픔을 딛고 성장한다.

어떻게 보면 다소 무겁게 느껴지는 이 이야기가 지난해 초연에 이어 올해 재연까지 관객의 호평 속에 공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아동 성폭력이라는 조심스러운 소재가 단순히 두 유진의 성장의 발판이 되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다뤄지는 것을 경계한 창작진의 사려 깊은 태도 덕분일 것이다. 작품은 두 인물의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아픔에서 벗어나고 한층 단단하게 성장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두 유진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도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선부르게 전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그에게 또 한 번 얼마나 큰 상처를 낼 수 있는지도 직접적으로 지적한다. 그러면서 너의 상처는 네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이제는 앞을 향해 나아가자고 손을 내민다. 무대 위 두 명의 유진은 물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유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고, 온 마음을 다해 연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작품에 담긴 것이다.

두 인물이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소설을 2인극으로 재구성해 뮤지컬만의 매력을 더했다는 점 역시 특별하다. 원작 소설이 두 유진과 그들을 둘러싼 인물들을 통해 이야기를 차근차근 펼쳐 나간다면, 뮤지컬은 성인이 된 주인공들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당시의 기억을 재연하는 '사이코

드라마' 형식을 빌려와 소설의 에피소드를 압축해서 보여준다. 무대에 오르는 배우가 단 두 명뿐이기에 두 배우는 1인 다역으로 각자 큰 유진, 작은 유진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의 인물까지 동시에 연기한다. 이 작품에서 두 유진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하게 그려지는 것은 두 유진과 그들의 엄마와의 관계인데, 두 사람이 어린 시절 겪은 사건에 대해 엄마를 비롯한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두 인물이 상처를 마주하는 태도를 구분 지었기 때문이다. 큰 유진이 가족들의 무한한 사랑 덕분에 상처의 흔적을 덮을 수 있었다면, 작은 유진은 그의 상처를 억지로 지우려 했던 가족들의 행동으로 인해 아픔을 기억할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상태로 성장한 것이다.

두 유진은 번갈아 가며 서로의 엄마 역할을 연기하다가, 극 말미에는 직접 자신의 엄마로 분해 그가 느꼈던 감정들을 꺼내 놓는다. 두 유진은 자신의 입으로 엄마의 감정을 전하면서 서로 방식이 달랐을 뿐 자식이 아픔을 이겨 내기를 바라는 간절함만은 같았던 엄마들의 마음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과정에서 두 주인공은 엄마에게 받은 상처를, 그 상처로 인해 더욱 질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치유한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또 자신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2인극이라는 형식은 치유와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이 이야기를 무대에 펼쳐내는 데에 더 없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뜨거운 열정의 결과물

<유진과 유진>은 젊은 여성 창작진 네 사람이 힘을 모아 탄생시킨 작품이다. <줄리엣과 줄리엣> <헤라,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 등 여성의 이야기를 꾸준히 무대에 올린 이기쁨 연출을 필두로, 공연계에서 꾸준히 내공을 갈고 닦은 신진 창작자 김솔지 작가, 양지



해 음악감독이 함께했다. <유진과 유진>은 탄탄한 대본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음악으로도 관객의 호평을 이끈 작품인데, '홍연', '상사화' 등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독특한 음악으로 사랑받은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이 참여한 결과다. 이 작품을 통해 뮤지컬 작곡가로서 첫 발을 댄 그는 '잊지 못한 짝사랑', '탈출' 등 흥겨운 멜로디의 넘버부터 '미운 오리 새끼', '상상 속 괴물' 등 인물의 복합적인 감정이 담긴 넘버까지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줬고, 기존의 뮤지컬 넘버와는 차별화된 매력의 음악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안예은의 음악을 키보드와 첼로로 구성된 2인조 라이브 밴드가 직접 무대에 올라 선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루프스테이션 기법을 도입했다는 점도 작품의 매력이다. 루프스테이션은 무대에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즉흥으로 소리를 만들어낸 다음 이를 쌓아 올려 화음을 탄생시키는 음악 기법인데, <유진과 유진>에서는 종이 찢는 소리, 의자 움직이는 소리 등을 사용해 관객이 더욱 풍성한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했다. 무대에 오른 연주자가 배우와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는 등 함께 호흡하며 2인극이라는 장르적 특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관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안긴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현대예술의 후원자들 2

한국의 컬렉터

하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최근 이견희 컬렉션 전시가 연일 매진되고 있다. 이견희 컬렉션 중 2만 3000여 점의 미술품과 문화재를 유족이 기증하였고, 이 중 일부가 여러 주제로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전시로 소개되고 있다. 이 중에는 인상주의 화가 모네(Claud Monet)의 작품뿐 아니라, 겸재 정선, 김환기, 이중섭 등 유명한 작가의 빼어난 수작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작품을 본다는 즐거움을 준다. 더불어 규모있는 기업의 총수인 한 개인의 이름으로 기증된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이러한 작품들을 모을 만한 뛰어난 안

목에 대해 놀라면서도 그 안목을 뒷받침할 재력에 감탄하게 된다. 더욱이 이 작품이 기업 총수 일가가 가진 소장품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에서 부러움을 감추기 힘들다. 그리고 보면, 르네상스를 꽃피웠던 이탈리아의 메디치가나 인상주의를 세계적인 미술로 만든 뒤랑 뒤엘 그리고 추상표현주의를 주류 미술로 이끈 구겐하임과 같은 후원자가 서양에만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이번 이견희 컬렉션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한국에도 적지 않은 후원자가 있었다. 그 중 조선대에 안목이 높다고 전해진 이는 세종의 아들 안평대군을 꼽을 수 있다. 아쉽게도 세조에게 반대를 했기에 지금은 안평대군의 소장품이 전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가 중국의 뛰어난 작품들을 다수 소유하고 있었고 예인을 후원하고 함께 즐겼다고 한다. 이렇듯 예술을 사랑했다는 하나의 증거를 안견의 <몽유도원도>^[도판 1]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뛰어난 화가였던 안견에게 도원에 산책간 꿈을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려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일본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중



1 안견, <몽유도원도>, 1447년, 견본담채, 38.6 x 106cm, 일본 나라 덴리대학 부속 덴리도서관

국 광희의 산수화풍을 따르면서도 안평대군의 꿈이라는 신선한 소재를 표현한 이 작품을 통해 안견의 예술적 능력이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가와 함께했던 안평대군의 컬렉터로서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또 다른 컬렉터는 없었을까?

훈민정음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우리는 일제강점기라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산천은 피폐해졌고 한국인들은 깊은 상처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또한 한반도의 과거도 지워져 갔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혼을 지우기 위해 역사와 문화를 왜곡했고, 수많은 문화재와 유물을 훔치고 파괴했다. 이때 간송 전형필(1906-1962)^[도판 2]은 우리의 예술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 집안을 경영하면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흩어져 유통되던 조선의 주요한 서화를 수집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거간꾼이나 일본의 수장가들을 찾아다니며 문화재들을 사들였다. 간송이 유물을 좋은 값에 사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훌륭한 문화재를 찾을 기회를 잡곤 했다. 그러다 우연히 조선의 화가 혜원 신윤복의 풍속화 30점이 일본 야마나카 상회

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소문하고 일본으로까지 건너가서 교섭했지만, 30점에 요즘 가치로 치면 90억원 정도인 3만원을 소장자가 제시했다. 이에 전형필은 한 번 더 협상하여, 2만 5천원에 어렵게 신윤복의 풍속화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렇게 수집한 혜원의 풍속화 30점이 담긴 화첩은 광복 후 <혜원전신첩(蕙園傳神帖)>으로 국보 제135호가 되었다. <단오풍속정도>^[도판 3]와 같은 신윤복의 그림은 조선의 생활상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섬세한 묘사와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화재이다. 이외에도 간송 전형필은 단원 김홍도나 겸재 정선 등 여러 조선의 회화와 서예, 그리고 도자와 석상이나 탑 등 다양한 문화재를 모았다. 그 중에 간송 전형필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도 포함되어 있다.

이 해례본은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책이다. 이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세종실록> 병인년(1446년) 9월 29일 자에 집현전 학자들에게 만들게 했다는 기록만이 남아있었다. 그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었기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추측만이 무성했다. 하지만 이 해례본에는 훈민정음의 목적과 창제원리, 표기 방법 그리고 반포날짜도 적혀 있어서, 인류역사상 유일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인 훈민정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그간 잊혀진 해례본을 간송 전형필이 얻기까지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국문학자이자 '천태산인'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김태준이 서예가 이용준의 처가인 광산 김씨 종택에 해례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당시 활동 자금이 필요했기에 이를 간송 전형필에게 팔고자 했다. 하지만 일본이 조선어학회 학자들도 체포하고 한글 사용을 엄격히 금하고 있던 시기였기에 이에 대한 정보와 전달 과정이 알려져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비밀리에 만나 사실 확인하고, 믿을 만한 대리인을 통해 책을 건네받게



2 간송 전형필



3 헤원 신윤복, <단오풍정>, 조선후기, 28X35cm, 서울 간송미술관 소장



4 간송미술관 전경

되었다. 간송 전형필은 이 책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김태준이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일만 원을 책값으로 지불했다. 그리고 위협을 무릅쓰고 책을 소개해준 김태준에게는 소개비로 10%에 해당하는 천 원을 주었다고 한다. 그저 사업적 수완이 아니라, 소중한 문화재에 그에 걸맞는 가격을 제시하고자 하는 간송 전형필의 안목을 알 수 있는 예이기도 하다. 입수한 후, 간송 전형필은 오동나무에 넣어 정성껏 보관하고 한국전쟁 중에는 직접 품에 넣고 피난을 했으며, 배개 밑에 넣어 보호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인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되고 현재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간송 전형필은 우리의 우수한 문화재를 모으는 것뿐 아니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938년에는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보화각(葆華閣)을 세우기도 했다. 한국 전쟁 시기에 소장했던 많은 유물이 유실되기는 했지만, 다시 정리하고 현재는 '간송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판 4] 그리고 낡은 건물과 시설 등의 문제로 추후 대구에 재개관될 예정이다.

호암 미술관과 리움미술관, 이병철

간송 전형필이 소장한 작품 중에는 10점 정도의 국보가 있고, 그 외에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다수의 국보를 소장한 이가 우리에

게 익숙한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1910-1987)이다. 호암 이병철은 소문난 미술 애호가로 30여 년에 걸쳐 수집한 한국미술품 1천 2백여 점을 수집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1982년에 경기도 용인에 호암 미술관을 세웠다. [도판 5] 이곳은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를 본딴 건물 입구와 아름다운 한국식 정원인 희원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그리고 이후 2004년에는 리움(Leeum) 미술관이 한남동에 개관하였다. 여기에는 호암이 모은 문화재뿐 아니라 그의 아들 이건희(1942-2020)와 부인 홍라희(1945-)가 수집한 세계적인 작품들도 포함되었다. 그래서 고미술을 소장하고 있는 간송미술관과 다르게, 리움미술관에



5 호암미술관



6 모네, <수련이 있는 연못>, 1917-20년, 캔버스에 유채,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이건희 기증



7 이중섭, <춤추는 가족>, 1953-1955, 종이에 유채, 22×29.7cm,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이건희 기증

는 호암 이병철이 모은 고미술과 함께 미술을 전공했던 홍라희가 수집한 현대작품까지 폭넓은 예술품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다. 그중 미술품과 문화재 2만 3000여 점이 '이건희 컬렉션'으로 기증되어, 현재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지자체의 미술관 등에 분산 소장되어 있다. 그중에는 인상주의 대표작가 모네의 <수련>^[도판 6] 작품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모네 작품을 볼 수 있다는 점에 사람들의 호응이 높다.

또한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 중에는 104점의 이중섭 작품이 포함되어었는데, 그중 90점이 2022년 8월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는 1986년 삼성문화재단의 호암갤러리(현재는 폐관)에서 기획한 '이중섭 30주기 특별전'에서 선보이고 전시되지 않았던 <춤추는 가족>^[도판 7]

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섭이 가족과 함께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특유의 간결한 선과 색으로 나타낸 그림으로,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승화한 작품으로 해석된다. 또한 제주도 서귀포 이중섭 미술관에도 이건희 컬렉션 중 이중섭 작품이 전시가 되어서, 작가의 이름을 딴 미술관임에도 진작이 적었던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그간 쉽게 볼 수 없었던 이중섭 작품을 적지 않게 기증하여, 앞으로 국공립미술관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한다. 창업주인 이병철부터 아들이자 전 삼성그룹 회장인 이건희와 홍라희의 미적 취향이 반영된 삼성문화재단의 소장품들은 한국의 고미술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대작품까지 망라되어 있어서, 그들의 높은 예술적 취향을 엿볼 수 있다.

우리도 소장가가 될 수 있다

안평대군, 간송 전형필이나 호암 이병철, 그리고 이건희까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장가들은 그들이 가진 부와 수준높은 안목을 기반으로 훌륭한 예술품을 모았다. 그리고 지난달에 살펴본, 페기 구겐하임이나 거트루드 스타인 역시 금전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뒤랑-뤼엘은 화상으로서 사업적 수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처럼 재력이 없다면 예술을 소장할 수 없을까? 비록 그들만큼 규모있는 소장은 못 할 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예술가의 전시를 찾아다니고 그의 도록을 사서 모으고 아트 상품을 사면서 소위 덕질을 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후원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온, 오프라인 아트페어나 갤러리를 통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신진 작가의 작품을 사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미술에 대한 책을 읽고 당시 예술가들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전시를 찾아보면서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현 미술계의 중요한 애호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즐기며, 마음에 드는 그림 한점을 사두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소장가가 될 것이다. 언말, 작은 그림 한점을 사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면 어떨까?

리가 오페라 축제

RIGA OPERA FESTIVAL

**발트 3국의
최초의 오페라 축제**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1998년 시작된 동유럽 최초의 리가 오페라 축제(Riga Opera Festival)는 이미 전통이 되었다. 리가 오페라 축제 관객 대다수를 차지하는 라트비아(Latvia) 관객뿐 아니라 해외 오페라 애호가 모두에게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국립오페라와 발레시즌이 끝나는 매년 여름, 해당 연도 중 가장 화려한 행사를 선보인다. 지난 6월, 3년 만에 개최된 리가 오페라 축제에서는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Simon Boccanegra)’와 ‘아이다(Aida)’, 지아키노 로시니의 ‘세네펀톨라(La Cenerentola)’와 ‘햄릿(Hamlet)’, 그리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지오반니(Don Giovanni)’가 무대에 올랐으며, 라트비아 국립 오페라의 지휘자인 피에르 조르지오 모란디(Pier Giorgio Morandi) 외 몇몇의 객원 지휘자가 축제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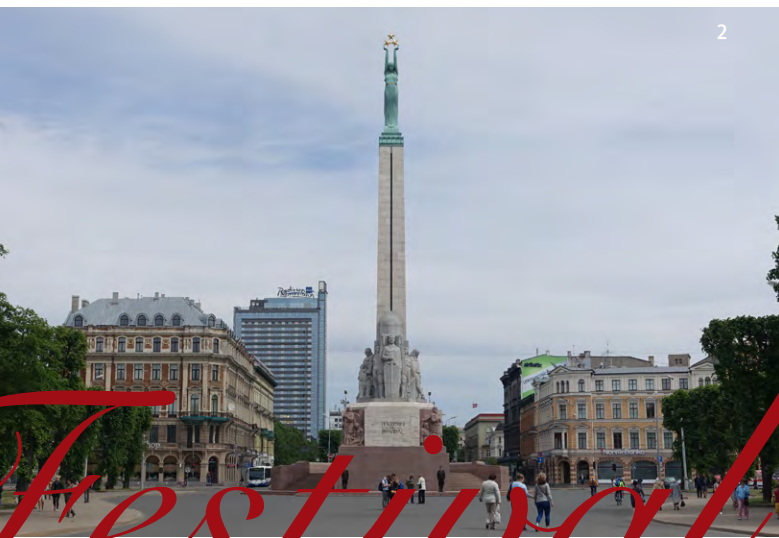
팬데믹으로 인한 3년 간의 공백을 깨고 2022년, 다시 시작한 축제에서는 처음으로 발레 공연이 포함되었다.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Swan Lake)’와 더불어 폴란드 안무가이자 발레감독인 크쥐시토프 파

Riga Opera



스토르(Krzysztof Pastor)의 안무와 영화음악 작곡가로도 잘 알려진 보체크 킬라(Wojciech Kilar)의 음악으로 만들어진 발레 ‘드라큘라(Dracula)’가 무대에 올려졌다. 그리고 축제 마지막 날은 갈라 콘서트로 마무리되었는데, 리가에서 서남쪽으로 30km 떨어진 엘가바(Jelgava)의 야외콘서트 극장에서 공연되었다.

1 라트비아 국립 오페라 극장 내부 2 라트비아 독립전쟁 자유 기념비



Festival

발트 3국은 동유럽? 북유럽?

대개 유럽에서는 라트비아(Latvia), 리투아니아(Lithuania), 에스토니아(Estonia) 세 나라를 일컬어 발트 3국이라 부른다. 이들은 지정학적으로 유럽 중부와 동부, 북부 사이, 즉 독일과 러시아,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이 발트해(Baltic)에 면해 있다. 그래서 편의상 발트 3국이라 불리지만 명확한 표현은 발트해 3국(Three Baltic States)이 맞겠다. 20세기 초반에는 핀란드도 발트 3국과 함께 묶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핀란드는 중립국이 된 반면, 발트 3국은 소련에 복속되어 공산권 블록에 속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같이 묶이지 않게 되었다. 민족적으로 에스토니아는 핀란드의 영향을 받았지만,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발트족 사람들이 건설한 국가이다. 20세기 이전까지 개별적인 국가였던 적이 없을 만큼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고,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도 1990년에 이르러서이기에 생각보다 역사가 길지 않다.

오늘날 발트 3국을 북유럽이나 동유럽이나를 놓고 분류하는 이견이 있지만 유럽연합에서는 북유럽 블록으로 분류하고 있다. 20세기 대부분 소련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 이전에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독일의 영향을 받은 기간이 더 길고 문화와 종교도 더 비슷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리투아니아의 경우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일대를 정복한 키예프 공국의 계승국 정체성을 가졌던 적도 있기에 동유럽의 역사로 분류될 때도 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북동유럽(Northeastern Europe)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글 서두에 리가 오페라 축제를 동유럽 최초라고 번역하면서, 꽤 고민을 하였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동유럽 블록과 라트비아는 제법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익숙한 지역도 아니다. 앞 문단에 발트 3국에 관해 최소한으로 언급한 이유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북유럽 혹은 발트 3국 최초의 오페라 축제라고 해야 하는데, 동유럽까지 포함해서 역사는 길지 않지만 가장 먼저 생긴 축제라는 점을 주축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게 개인적



3 라트비아의 랜드마크인 블랙헤드의 집



4 라트비아 국립오페라극장

인 생각이다. 그만큼 서유럽을 벗어나면 오페라 축제가 드물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리가 오페라 축제에 관해서는 국내에도 소개된 바가 없기에 리가 오페라극장의 웹사이트의 번역을 일부 가져왔다.

발트 3국과 클래식 음악

최근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이 지역 출신 음악가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으며, 공연장 역시 발트 3국 주요 도시마다 하나 둘 이상 가지고 있다. 2019년 안타깝게 타계한, 우리시대 최고의 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 마리스 얀손스(Mariss Jansons)가 바로 라트비아 리가(Riga) 출신이며, 라이프치히에 소재한 독일 명문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Gewandhaus orchestra)와 미국 동부의 BSO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Boston Symphony Orchestra)의 음악감독 안드리스 넬손스 (Andris Nelsons) 역시 리가 출신이다.

이 밖에도 마에스트로 네메 예르비(Neeme Järvi)와 파보 예르비(Paavo Järvi)는 에스토니아 탈린(Tallinn) 출신이다. 이는 발트 3국의 클래식 공연 저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유이다. 공연장 시설은 또 어떠한가. 먼저 리투아니아 수도 빌니우스(Vilnius)에 있는 리투아니아 국립 오페라 발레극장(Lithuanian National Opera and Ballet Theatre :LNOBT)은 1974년 완공되었으며, 이번 호의 라트비아 국립 오페라극장은 발트 3국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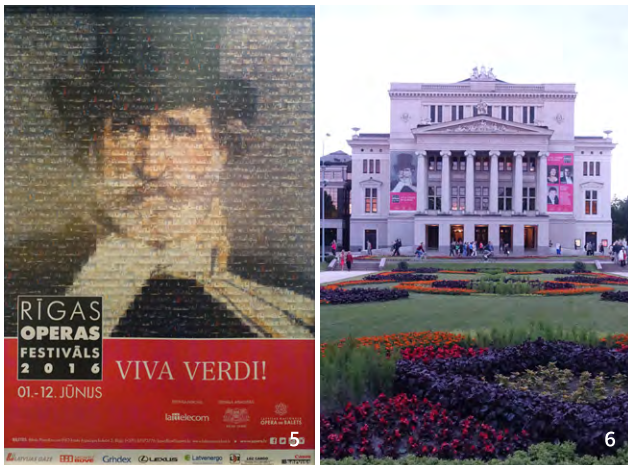
라트비아 국립 오페라 극장 LNO(Latvian National Opera)

리가 오페라축제가 열리는 라트비아 수도 리가(Riga)는 1782년 이미 독일어 오페라를 하는 극장이 존재했을 만큼 전통이 있는 도시이다. 1893년 라트비아어 오페라 ‘쿠

를란트 공국 (Duchy of Courland)'이 최초로 공연되었으며, 1912년 본격적으로 오페라 컴퍼니가 설립된다. 라트비아 오페라의 공식적인 역사는 작곡가 파블스 유르얀스(Pāvuls Jurjāns)가 리가에 라트비아 오페라(Latviešu Opera)를 설립한 1912년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중에 대부분의 가수들은 러시아로 피난갈 수 밖에 없었고, 1918년이 되어서야 라트비아 음악 아카데미의 창립자이자 오랜 총장인 야젠프 비톨스(Jāzeps Vītols) 교수의 지휘 아래 리가로 돌아왔다. 1919년 1월 라트비아 국립 오페라는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으로 첫 공연을 선보였다. 하지만 세계대전 동안 컴퍼니는 러시아로 대피, 현재 모습의 라트비아 국립 오페라극장은 1995년 이후 리노베이션 된 모습이다.

라트비아 국립 오페라 발레단 LNOB(The Latvian National Opera and Ballet)

라트비아의 오페라와 발레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국립극장으로 1918년에 설립되었다. 라트비아 국립 오페라 발레단의 레퍼토리는 고전적이고 낭만적인 예술의 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표현 형식을 추구하고 있다. 발레단의 경우 1922년 국립발레단의 첫 공연인 '변



5 2016년 '비바 베르디' 포스터

6 늦은 밤 11시 오페라가 끝나도 밝은 북구의 6월



7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장면

덕스러운 딸(The Wayward Daughter)' 이후 올해 100주년의 역사를 맞이하기도 했다. 라트비아 국립 오페라단은 지난 시즌의 경우 오페라와 발레를 함께 공연하는 레퍼토리 극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 시즌 동안 약 200회의 공연이 펼쳐질 만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필자가 리가 오페라 축제를 찾았던 건 6년 전인 2016년이 었다. 당시 '비바 베르디!(VIVA VERDI!)'라 하여 베르디 오페라를 레퍼토리로 6월 1일부터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맥베스', '아이다', '일 트로바토레' 등 베르디의 다섯 작품과 축제 마지막 날 갈라콘서트까지 12일 동안 펼쳐졌다. 당시 발트 3국과 북유럽의 주요 오페라극장을 방문할 목적으로 여행하였는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시작하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거쳐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순으로 여정을 이어갔었다. 방문했던 주요 도시마다 오페라 공연을 찾았지만,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결국 오페라 축제 중 작품을 만났던 건 라트비아 리가에서 었다. 물론 비슷한 시기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백야 축제(White Nights festival)가 펼쳐지기도 했다.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아니면, 백야 축제의 오페라 이야기도 소개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논외하기로 했다. 제번하고 해가 긴 6월의 북구는 발트 3국 및 북유럽을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이기도 하다. 기대하지 않고 찾았던 리가 오페라 축제였지만, 당시 만났던 '일 트로바토레'는 서유럽의 명문 오페라 축제에서 만나는 그 어떤 작품 못지 않게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다.



박나무 자유기고가

파리 6구의 르 프로코프는 1686년부터 운영중인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다. 337년을 이사도 가지 않고 한자리에서 지냈으니 그 세월의 깊이만큼, 단골들의 면면도 보통이 아니다. 커피를 몹시 좋아했던 청년장교 나폴레옹이 외상값으로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은 모자는 이제 이 카페의 중요한 자랑거리. 디드로, 달랑베르, 루소, 볼테르 등이 주축이 되어 1751년 펴낸 백과전서의 산실도 사실상 르 프로코프다. 백과전서의 필진 150여 명은 거의 단골손님들이었고, 그이들은 카페에 눌러앉아 고뇌하고 때로는 격론하며 원고들을 써내려갔겠지. 왕정을 물리칠 혁명도 이 곳에서 잉태되었다고 보면 과잉일까? 당대의 지성들이 모여서 토론하며 살을 붙인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장소라 그런 혐의를 둘만도 하다. 그 카페가 프랑스의 역사와 철학, 사회와 문화를 온전히 담은 채 보존되며 숨 쉬고 있음은 꼭 다행이면서도 부러운 일이다.

장전동 부산대 인근에 2012년 8월 문을 연 카페 봄은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내과의사가 본업인 정재성 대표가 파리의 르 프로코프, 베니스의 플로리안, 로마의 그레코 같은 카페가 우



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문을 열었다. 목요일마다 문화강좌, 토요일마다 연주회가 열리는데 15,000원~20,000원이면 관람에 더해 음료까지 제공한다. 때론 무료강좌와 무료공연도 있다. 연주자들이 한두 명만 오는 경우는 드물어서 현 수준의 관람료로는 턱없이 부족해 결국 개런티는 봄이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그동안 정 대표와 지인들이 추렴해왔다면, 이제는 조금씩 체계를 잡아가려는 모양이다. 동양철학자 윤종갑과 서양철학자 류지석이 공동대표로 힘을 보태고 있고, 음악을 전공한 정윤경 매니저가 상주하며 봄을 돌보고 있다. 10년의 세월 속에서 윗돌과 아랫돌이 잘 맞물려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다.

봄은 공연장과 세미나실을 빌려주기도 한다. 세미나실은 유럽의 그 카페들처럼 방마다 고풍스러운 이름들이 붙어있다. 세잔/르누아르룸은 6~8인실, 다빈치룸은 10인실, 모네룸은 13인실, 칸트룸은 20인실로 구성되어 있고, 공연장은 60석과 야마하그랜드피아노에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다. 1층과 2층은 일반카페로 운영되는데 2층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해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편이고, 1층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어



도 덜 미안한 곳이다. 로스터리 시설도 직접 갖추고서 에티오피아, 브라질, 과테말라의 최상의 품질을 갖춘 원두를 엄선해 맛있는 커피를 제공한다는 자부심도 있다. 신선한 과일음료에 브런치메뉴까지 가세해서 어떤 우수한 카페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으니 “이제 손님만 많이 오시면 된다”고 한다. 북카페 한 달 이용권은 99,000원에 매일 아메리카노 한 잔에 지정석과 사물함까지 이용할 수 있다니, 구미가 땡긴다. 공부하다 지겨우면 카페벽에 가득한 작품들을 감상하며 안구를 정화할 수 있고, 어쩌다 기회가 되면 아름다운 소리에 귀호강도 할 수 있으리라.

부산대 앞이라고 하면 술집과 식당이 많아 변화하고 놀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이런 카페에서 문화를 향유하며 놀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도 생겨났으면 좋겠다. 연주할 공간이 없어서 애먹는 신인들이 데뷔할 수 있는 무대, 주말마다 멋진 공연이 있을 것이라며 불쑥 와도 믿고 볼 수 있는 곳, 노인과 청년이 한 데 어울려 문학과 철학과 사회를 토론하는 담론의 공간, 유럽의 그 카페들처럼 오래된 역사정신을 품어 보여주는 곳...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조명이나 불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지만 계속해서 세상을 비추는 별처럼 오래오래 존재하는 봄이고 싶다”는 정 대표와 운영진들의 바람이 잘 실현되기를 바라봄.

INVITATION TO THE ARTS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옴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BS부산홀	620-7181
SM아트홀	1600-1602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50주년 기념공연 및 제188회 정기연주회

하이든 천지창조



- **올해로 창단 반세기를 맞은 부산시립합창단이 창단 50주년을 기념하고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마무리하는 무대로,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해 12월 헨델의 ‘메시아’에 이어 열리는 부산시립합창단 오라토리오 사이클 두 번째 무대로, 유려한 독창과 극적인 합창의 조화가 돋보이는 ‘천지창조’로 송년의 아쉬움을 달랜다. ‘천지창조’는 하이든의 음악 세계를 대표하는 작곡이자 헨델의 ‘메시아’와 더불어 오라토리오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대작이다.

예술감독 이기선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오케스트라인 UKO(United Korean Orchestra, 음악감독/최영화)가 연주하고 소프라노 김순영, 테너 황병남, 바리톤 이광근, 베이스 문동환이 솔리스트로 출연한다. 지난 2006년,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UKO는 부산과 경남, 포항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정기연주회 및 자선음악회를 통해 음악을 통한 이웃사랑을 펼치고 있다.

소프라노 김순영은 스위스 제네바국제콩쿠르, 동아콩쿠르 입상, 성정음악콩쿠르 1위, 2013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특별

상, 2015년 뮤지컬 최고 여우신인상을 수상했으며, 뮤지컬 ‘팬텀’의 여주인공 크리스틴 역으로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다.

테너 황병남은 독일 Bad Hersfelder 오페라 축제 올해의 신인 성악가상, 오스트리아 Ferruccio Tagliavini 국제 성악콩쿠르 우승 및 최고 테너특별상, 올해의 평론가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현재는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오페라 주역 및 콘서트성악가로 활동 중이다.

바리톤 이광근은 2006년 울림 극장을 시작으로 독일 무대에서 본격적인 유럽활동을 시작, 2018/2019년 시즌 하겐 극장에서 객원가수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부산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베이스 문동환은 현재는 부산시립합창단 베이스 부수석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MBC와의 공동주최로, 온라인 실황중계로도 만날 수 있다.

일 시 12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5회 정기연주회 동반자



● **올해 창단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제595회 정기연주회로 2022년을 마무리한다.**

최수열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20세기 영국 중흥기를 이끌었던 작곡가 엘가와 브리튼의 작품으로 꾸며진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은 작곡가 브리튼이 자신의 연인을 위해 작곡한 '세레나데'로, 테니스, 블레이크, 키츠 등 16~19세기 영국 대표 시인의 시를 특유의 개성있는 음향으로 엮은 8곡의 연가곡집이다. 원래는 테너와 호른 솔로가 현악 오케스트라와 협주하는 독특한 편성이나 이번 무대에서는 테너가 아닌,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올림픽 찬가를 부르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소프라노 황수미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있는 호른니스트 이석준과 호흡을 맞춘다.

2014년 국제 3대 음악 콩쿠르 중 하나인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소프라노 황수미는 정명훈,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마르쿠스 슈텐츠, 사카리 오라모와 같은 저명한 지휘자들과 함께 작업해왔으며, 현재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오페라 무대와 콘서트 무대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독일 유학 당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뮌헨 국제콩쿠

르(ARD) HORN 부문 본선무대에 참가하여 국내 및 현지의 음악가들에게 주목을 받은 호른니스트 이석준은 KBS교향악단 수석, 서울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 부천필하모니 부수석, 독일 뒤셀도르프 챔버 오케스트라 객원 수석을 역임하고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연주회의 또다른 프로그램인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은 작곡가로서 엘가의 이름을 알린 작품이자 헨리 퍼셀 사후 200년 만에 세계 무대에 등장한 영국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이 곡 또한 엘가의 다른 걸작들처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상반된 이미지의 두 사람이 바로 엘가의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이 그의 음악을 매력적으로 만든다.

공연 하루 전날인 12월 22일 열리는 '심포니아夜'에서는 이번 정기연주회의 프로그램인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을 대원 문화재단 전문위원이자 음악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꼼꼼하고 진지한 해설로 두터운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음악칼럼니스트 황정원의 해설과 함께 미리 만날 수 있다. '심포니아夜'는 연주 시작 전 음악칼럼니스트로부터 연주곡에 대한 에피소드와 해설을 통해 무대를 더욱 깊이 감상할 수 있어 음악학도와 클래식 매니아층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일 시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기획음악회 '심포니아夜'는 전석 1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 2021년 연말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으로 큰 화제를 모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2022년 더욱 업그레이드 된 무대로 부산 시민들과 만난다.

찰스 디킨즈 원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크리스마스 캐롤'은 부산시립예술단 4개 단체가 참여하는 초대형 융복합 콘텐츠 공연이다. 송년 가족 관객들을 위한 '메이드 인 부산' 작품을 만들기 위해 2020년부터 기획, 지난해 첫선을 보인 '크리스마스 캐롤'은 극을 이끌어가는 부산시립극단을 비롯해 시립합창단,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160여 명의 출연진이 참가하는 대작으로,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한 이야기 중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크리스마스 캐롤'은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가 자신을 찾아온 혼령들을 만나 자신의 인생 속 크리스마스를 체험한 후, 반성하고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교훈적인 이야기이다. 부산시립예술단의 '크리스마스 캐롤'은 지난 초연에서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이 재구성하고 작사, 연출을 맡아 기존 작품의 틀을 깨고 스크루지 영감이 아닌 메리 스크루지 할머니로 각색되어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음악은

창작오페라 '그 이름 먼 구름'으로 김지용 예술감독과 호흡을 맞춘 작곡가 백현주가 총 18곡의 합창넘버를 작곡, 융복합 공연의 매력을 이끌어냈다.

올해는 2021년 초연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각 예술단의 장르적 특색과 예술적 역량을 담아내고, 더욱 풍성하고 화려한 음악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에 새 기운을 불어넣는다. 특히 2022년 창단 5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립합창단 이기선 예술감독이 올해에도 합창단과 청소년교향악단의 지휘를 맡아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여준다.

메리 스크루지를 맡은 시립극단 수석 이현주를 비롯해 전 단원들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웅장하고 때로는 감미로운 합창 넘버, 청소년교향악단의 라이브 연주, 스토리와 어우러지는 시립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지역의 객원 배우와 무용수들이 부산시립예술단과 호흡을 맞추며 연합공연의 의미를 살려준다.

훈훈한 연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소망엽서쓰기로 가족 관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일 시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24일 토요일 오후 3:00,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만 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4인 가족 이상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준 창단 60주년 기념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3회
정기연주회 '회갑'

◆ 김희성 동서대학교 사회환경공학과 교수

창단 6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한 부산시향에게 2022년 11월 2일은 그 어떤 연주회보다 의미있고 뜻깊은 시간이겠지만, 불과 사흘 전 발생한 이태원에서의 참사로 무작정 기뻐만 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

회갑(回甲), 부산시향이 창단된 1962년으로부터 60년이 지나 다시 똑같은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부산시향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생각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의미있는 연주회를 계획하였다. 하지만 스트라빈스키의 '축하 전주곡'이 연주되며 축하와 기쁨으로 가득 넘쳐야 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는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 2악장 라르게토가 연주되어 희생당하신 분들을 추모하였다. 2017년 4월, 당시 객원지휘를 한 최수열 예술감독이 부산시향을 지휘한 바로 그 작품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연주되었다. 슬픔을 애써 감추며 감정을 억제하는 연주에 나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고 눈물을 흘리는 청중들도 있었다. 지휘자의 입장과 퇴장, 연주가 끝났을 때 박수를 삼가해 달라는 안내에 따라 객석을 가득 채운 청중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연주를 지켜보았다. 8년 전 4월, 세월호 침몰로 채 피기도 전에 이 세상을 떠나간 어린 학생들을 기리며 부산시향은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중 '님로드'를 연주했었는데 그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 또다시 발생된 비극에 무거운 마음으로 연주회를 지켜보게 되었다. 하지만 안타까움을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예술의 힘이다.

이번 정기연주회의 프로그램이 공개되었을 때 공감과 의아함이 동시에 있었다. 현대음악인 진은숙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이 창단 60주년 기념음악회 프로그램으로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다. 그동안 부산시향 정기연주회에서 10회 이상 연주되었을 정도로 사랑받은 유명한 바이올린 협주곡이 선택될 수도 있었겠지만 생소한 작품이며 청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작품이 왜 선곡했을까? 그 이유를 최수열 예술감독은 '월간 객석'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부산시향과 현대음악



을 자주 다뤘었고 2022년 올해의 예술가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동시에 도전하고 싶었던 작품이었다고 밝혔다. 진은숙 작품은 이미 두 번이나 부산시향 정기연주회에서 연주되었다. 2018년 4월, 제539회 정기연주회에서 오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영망친창 티파티'와 2022년 4월, 제586회 정기연주회에서 한국초연으로 '수비토 콘 포르차'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2021년에는 올해의 예술가로 김택수를 선정하여 그의 작품을 연주하는 등 현대음악 연주에도 많은 공을 들여왔다.

부산시향에 몸담았던 많은 원로음악가들과 부산시향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현대음악인 진은숙 작품을 창단 60주년 기념음악회 프로그램으로 선정한 것은 바로 부산시향의 미래를 자신있게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쉽게 접할 수 없는 낯선 작품을 과감하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새로운 음악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도 시립예술단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하기에 의아함 속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들었다. 그러나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애호가로서는 현대음악의 감상은 편안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었다. 음반도 흔하지 않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여러 번 감상해 봤지만 역시 익숙치 않은 난해함으로 귀에 잘 들어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실황에서의 양인모의 연주는 사람을 집중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었고 처음 느꼈던 낯설음은 어느덧 사라지고 익숙하지 않은 선율을 따라가고 있었다. 특히 1악장 도입부 선율이 반복되며 끝난 4악장 종결부를 감상하며 '회갑'이라는 의미에 잘 어울리는 멋진 선곡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1부를 마치고 로비에서 만난 지인들은 현대음악의 난해함을 이야기하면서도 감상하기 어려웠던 작품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다. 11월 10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부산시향과 같은 작품의 협연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인모는 '원래부터 관심이 있던 곡이어서 2년 전쯤 악보를 구해 연습했다'며 '앞으로 동시대 음악에 더 매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음악 연주에 대한 음악인으로서 사명감을 느낄 정도로 현대음악을 음악애호가에게 소개하기 위해 노력을 하며 '그냥 와서 즐기면 된다'는 그의 말처럼 창단 6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현대음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의미있는 1부였다.

이제 창단 60주년 기념음악회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인 R.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만날 시간이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유명한 저서를 바탕으로 완성된 이 작품보다 최수열 음악감독과 부산시향에게 더 의미있는 작품이 있을까?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연주로 들려주었던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의 라르케토를 최수열 음악감독이 객원지휘한 2017년 4월, 제528회 정기연주회의 메인 프로그램이 바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였다. 또한 부산시향 예술감독에 취임한 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R.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을 진행했었는데 2019년 11월, 제556회 정기연주회에서 바로 이 작품으로 그 대장정을 마무리하였다. 1992년 30주년 기념음악회에서도 이 작품이 연주되었는데, 최수열의 지휘로 세 번째 만나게 되는 부산시향의 차라투스트라는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연주를 기다렸다.

트럼펫으로 시작되는 유명한 서주는, 역대 최고의 SF 영화로 평가받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68년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 '인류의 여명' 부분에 서주가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는데, 문명의 개화를 표현하며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서주가 너무 인상적이었을까, 뛰어난 작품성을 가진 이 교향시 전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R.슈트라우스의 대표 작품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뛰어난 작품성과 음악적 깊이를 가지고 있다. 오르간과 함께 총주로 연주될 때 대극장을 가득 채운 음향학적 쾌감과 여러 악기들로 섬세하게 표현되는 각각의 주제를 감상하며, 작품이 연주되는 35분여 짧은 시간에 인간 삶의 다채로운 면을 지켜보는 듯 많은 생각에 빠지게 만든 연주였다. 부산시향이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최근 발표된 부산시향의 2023년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에는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브루크너, 말러의 교향곡과 6개의 마지막 작품 시리즈, 2023 올해의 예술가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이 예정되어 있어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연주회이다. 부산시향을 찾으면 언제든지 뛰어난 작품과 수준 높은 연주를 만날 수 있고 항상 최고의 만족을 느끼게 되길 바라며, 수많은 부산시향 팬들이 2082년 또한번의 '회갑(回甲)'을 만날 때까지 열성적인 성원을 하게 되길 희망해본다.

노래는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수는 아무나 할 수 없다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50주년 기념 '4인 4색 합창축제'

◆ 이연기 영산대학교 Art&Technology대학장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부산시립합창단의 창단 5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가 '4인 4색 합창 축제'라는 타이틀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창단 5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합창단의 역사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단원들이 중심에 있으면서 다양한 지휘자들이 동행하며 함께 한 아름다운 음악 활동의 역사이다. 그러기에 우선 공연에 앞서 타이틀에 담긴 주제가 많이 아쉬웠다. 부산시립합창단은 부산 시민들의 세금으로 잘 숙련된 성악가들을 엄격한 시험을 거쳐 선발한 프로 성악 예술인들이다. 수많은 날을 연습실과 레슨을 통해 적게는 7년, 많게는 10여 년 이상 자신과 싸워 가며 오로지 관객의 즐거움을 위해 준비하여 특별한 프로 합창단원이 된다. 그래서 가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들은 모두 존경과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많은 합창무대에서 지휘자들의 권위만이 드러나는 연주가 종종 기획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번 창단 50주년 기념 공연에서도 제목부터가 '4인 4색 합창축제'인데다 '부산시립합창단은 그동안 거쳐간 지휘자들이 있어서 50년의 역사가 있다'는 멘트로 공연을 시작하면서 창단 50주년 기념공연이 마치 지휘자들의 경연장 같아 보였다. 일부 지휘자는 단원들과 음악 기술적으로도 소통이 되지 않은 채 무대에서 춤, 혹은 웅변자의 몸짓으로 무대를 채우려는 알пах함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게다가 연주에 있어서도 크게 특별할 것도 새로울 것도 없었다. 지휘자 4명의 각기 다른 색깔을 보여 주려고만 하다 보니 정작 관객과의 공감과 소통에서도 아쉽기만 했





다. 특히 이번 창단 50주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단원들이 정작 지휘자의 그늘에 가려 축하받아 마땅한 자리를 빼앗긴 듯 보여 아쉬움이 남은 기념공연이 되고 말았다.

상임 지휘자는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정도 단원들과 함께 한다. 즉 부산시립합창단의 역사는 단원들,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합창 음악은 지휘자의 고집만으로 감동을 줄 수 없다. 모든 프로 음악은 권위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합창을 비롯한 성악은 피나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특별한 기술과 생물학적 호흡, 정서적 호흡을 동반하며 관객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소통 없는 무대는 죽은 무대이다. 모든 연주가 그러하듯 합창단이 무대에 서는 행위는 만남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무대의 기술적인 부분과의 만남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오로지 작곡가, 지휘자, 연주자, 관객의 공감으로 이루어진 진실한 공감과 소통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가 작곡가와 연주자 및 지휘자의 만남. 합창은 가사가 있어 말이 전달되어야 하는 음악 예술의 극치이다. 그러므로 작곡가와 지휘자의 만남은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하다. 살아 있는 작곡가든 이미 타계한 작곡가든 지휘자는 그 작곡가와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 말을 기반에 두고 작곡한 음악이니까

더욱 그렇다. 두 번째, 작곡가와 충분한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한 지휘자는 연주자, 즉 합창 단원들과 함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단원들과 작곡가와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곡이 가진 기술적 테크닉과 말에 진실을 입혀 그 말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공감하면서 소통하고 만나야 한다. 세 번째 작곡가, 지휘자, 가창자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지휘자의 권위나 단원들의 개인기 같은 기술을 초월한, 진짜 말의 해석력으로 작곡가의 특별한 메시지를 관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관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져 함께 공감했을 때, 비로소 그 무대는 최고의 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묵묵하게 자신의 기량을 지휘자의 능력치 이상을 보여 주며 모든 지휘자를 빛나게 하고 때로는 단원들이 스스로 무대의 긴장감을 살려내는 프로 중의 프로 성악가 집단인 부산시립합창단 단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존경과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새로운 반세기를 향해 다시 나아가는 부산시립합창단의 앞길에 큰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노래는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수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말로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모두를 위한 오페라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 정춘식 음악평론가

배리어프리(Barrier Free)¹⁾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2016년 최초로 배리어프리를 오페라에 도입해 국내외 8관왕을 수상하며 인정받은 정희정 총감독이 2017년 연출을 맡아 [소리로 보는 오페라]라는 이름으로 부산문화회관에 올려 극찬을 받은 작품이다. 이번에는 기존 타겟층이었던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에 청각장애인까지 더해 [모두를 위한 오페라]라는 이름으로 올려졌는데, KNN방송국 앵커이자 신라대 초빙교수인 정희정이 총감독으로 제작/지휘, 부산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잔니스키기’, ‘카르멘’, ‘청교도’, ‘마술피리’, ‘사랑의 묘약’ 등을 무대에 올린 노이름 연출가가 연출을 맡았다. 정희정은 오페라의 사회성을 조율해 내는 튜너(Tuner)로서의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내재된 소통과 불통의 가시거리를 공동체적인 삶의 공간으로 변모시키며 라이프스타일의 새로운 장르로 선보인다.

먼저 총감독 정희정은 도슨트(해설가)로 무대에도 올라 작품의 개요와 주인공들의 성품, 환경 그리고 극의 전개과정들을 조율해나간다. 또한 오케스트라의 슬픈 선율로 시작되는 프렐류드는 비올레타의 순애와 비애를 나타내듯 애잔하고 여리게 시작되며 비올레타와 알프레도의 만남과 타오르는 사랑, 그리고 슬픈 결말을 암시하는 듯한 주선율은 언제 들어도 가슴이 시리도록 아름다워 아릿한 여운으로 남는다. 기존의 오페라와는 다른 새로운 전개방식은 관객들과 소통의 폭을 넓혔으며 레치타티보 없이도 극의 전개과정이 끊어짐없이 연결되는 흐름은 새롭고 신선하기까지 하다. 무대에 올려진 대형스크린 속에 성우들의 모습을 실루엣으로 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인공들의 동선과 연계시키는 연출은 오페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시도이며 오페라공연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이탈리아 오페라라고 하기보단 독일의 징슈필처럼 성우들의 연기와 대사처리가 작품에



주는 영향과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데 있어 단연 돋보이는 해석이었다

스크린속의 비올레타는 성우 이선이 연기하였는데 KBS 성우 23기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올리비아 핫세), '툼레이다'의 라라(안젤리나 졸리), 만화영화 뽀로로역과 '베르사유의 장미'의 오스칼역에 출연한 베테랑답게 슬픔을 가득 머금은 듯한 자태로 비올레타의 내면과 현재의 심경을 여실히 드러내어 준다. 이어 소프라노 이윤경과 테너 이범주가 주인공 비올레타와 알프레도로 변하여 함께 '축배의 노래'를 들려준다. "자유롭고 아름다운 꽃장식 가득한 술잔으로 기쁘게 즐기시다. 시간은 덧없이 흐르는 것. 마음껏 이순간을 즐기시다"라고 알프레도가 선창을 하고 뒤이어 비올레타가 "여러분들로 인해 저는 기쁨을 누리죠. 좋아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의미가 없어요. 함께 누리요. 사랑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도 언젠가 시들게 되는 것"이라고 자신의 운명을 암시하는 듯한 노래를 부른다.

사교계의 여왕이자 코르티잔(특정 상류사회 남성모임에 동반하여 그의 공인된 정부 역할을 하던 여성)인 비올레타는 가무에 능하고 시사적 지식과 교양을 두루 갖춰 상류사회 남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 이에 반해 알프레도는 쾌락보다는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는 순진한 부르주아였다. 그는 비올레타에게 빛과 희망이 되어 응어리진 마음을 녹이고 행복과 사랑을 심어주려하는 원정(園丁)이 되려한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지만(Un di felice eterea) 비올레타는 자신은 우정만 줄 수 있다고 답한다. 그러면서 이 오페라의 명제(命題)라고 할 수 있는 "E'strano(이상해)". '이상해 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이...'라며 어쩔 줄 몰라한다. 비올레타는 빛과 희망이 되어 응어리진 마음을 녹이고 사랑을 추구하는 동기가 되어 주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모두의 Persona에 관한 모습을 보여준다. "E'strano!", 이 말은 3막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나온다. 격력하게 꿈틀대던 고통이 사라졌다고 기뻐하며 다시 태어난 듯 힘이 솟구친다며 일어나던 그녀가 그대로 쓰러지며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린다.

이번 '라 트라비아타' 공연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쉽게



넘길 수 없는 탄탄한 구성과 전개에 있다 도슨트로 참여한 정희정 총감독의 명료한 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문자통역(음악 느낌과 지문 등을 담은 자막), 시각장애인을 위한 성우들의 연기과 대사는 장애인들이, 나아가 비장애인들도 오페라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본다. 그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챔버 오케스트라의 잔잔한 선율, 색채를 입힌 듯 음색을 어루만지는 지휘자(윤승업)의 음악 만들이 돋보였던거 같다. 또한 소프라노 이윤경과 테너 이범주, 바리톤 최병혁의 아름답고 강렬한 치유의 음색이 작품 전반에 수놓아져 한층 더 이 작품을 친숙하게 만날 수 있었다. 성우 배한성은 천의 목소리로 알려진 대한민국의 대표적 성우인데 이번 공연에서 그의 진면목을 여과없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수확이었다. 알프레도역의 성우 전승화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관객들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힘을 발휘하였다.

"누구나 오페라가 궁금할 수 있죠. 하지만 시·청각장애인은 이런 궁금증에 평생 답을 얻을 수 없을수도 있겠다는 생각, 거기에서부터 배리어프리 오페라가 시작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모두를 위한 오페라! 총감독 정희정이 추구하는 근간(根幹)은 장애인들의 공동체적 삶의 참여이다. 인물구성에서부터 얼굴의 형상을 지워버리고 소리로 특화된 프레임을 재구성한다. 그래서 공감을 담은 소통을 작품의 주체로 전환시키며 색채를 입힌 음률을 언어로 승화시킨다

[1]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장애물을 없애는 운동인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1970년대에 건축계에서 처음 시작하였고 이후 사회전반에 걸쳐 전파 되었으며 문화예술계도 동참하여 장애인, 특히 시·청각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예술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대전환, 그리고 포용의 닿을 올리다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BICmf) 2022 프리콘서트

◆ 류태형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BICmf, 예술감독 오충근) 프리콘서트가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부산문화회관과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펼쳐졌다. 이번 프리콘서트는 클래식 음악의 미래를 향한 뜻을 올리는 내년 본격적인 축제에 앞서 부산국제아트센터와 부산오페라하우스 등 부산 클래식의 베이스캠프가 될 베뉴들을 예고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의 의미를 띤다. 16일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역사적인 개막공연이 열렸다.

첫 무대의 주인공은 백재진·이경선(바이올린), 김상진(비올라), 이명진(첼로)과 BICmf챔버오케스트라였다. 77학번 협연자부터 17학번의 오케스트라 멤버까지 40년에 걸친 신·구의 미덕이 다양하게 조화를 이뤘다. '대전환 그리고 포용'이라는 음악제의 캐치프레이즈를 떠올리게 했다. 열가 '서주와 알레그로'에서 비올라의 부드러운 선율은 바그너 '지그프리트 목가' 같은 목가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기성세대 교수들의 현악 4중주와 신세대인 현악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앙상블을 일궈가는 모습이 조화로웠다.

하피스트 황세희는 BICmf챔버오케스트라와 헨델 하프협주곡을 협연했다. 방송 시그널로 익숙한 선율이다. 실제 하프 연주는 '천상의 악기'라는 말을 실감케 했다. 오케스트라 현의 피치카토가 리드미컬하게 어우러졌다. 황세희는 반복되는 악구에서 장식음을 다양하게 쓰며 변화를 가져갔다. 홀 내부에 섬세하게 울려 퍼지는 하프의 음색에 관객은 차분하게 젖어들었다. 카덴차는 마르셀 그랑자니의 것으로 연주했는데 현란한 기교가 귀를 편안하게 하는 안정적인 연주였다. 경쾌하게 진행된 3악장에서도 하프는 커다란 오르골 소리 같이 심금을 울렸다.

스웨덴 작곡가 쿠르트 아테르베리의 '바이올린, 비올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3번'은 이날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다. 이경선과 김상진이 BICmf 챔버오케스트라에 가세해 두터운 오케스트라, 예리한 바이올린, 위로하는 듯 푸근한 비올라가 어우러졌다. 때로는 민요적이고 흥겹지만 묘한 두려움이 후기 낭만적 분위기를 풍겼다.

브리튼 '단순교향곡'은 이경선·김상진·이명진이 수석을 맡아 눈빛을 교환하며 지휘자 없이 연주했다. 1악장은 서두르지 않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연주였다. 2악장 피치카토는 청량감을 주었다. 툭툭 튀는 신선함이 생기 있었다. 3악장에서 앙상블은 어둑어둑하고 비장하게 움츠렸고 4악장은 일사불란하게 펼쳐면서 마음껏 발산하는 자신감이 돋보였다. 앙코르 '대니 보이'는 부산의 향수와 세계를 향해 닦을 올리는 지점을 떠올리게 한 인상적인 순간이었다.

17일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리스트 12개의 초절기고 연습곡을 연주했다. 피아노 의자에 앉자마자 1곡 전주곡 연주를 시작했다. 단단한 저음이 돋보였다. 2곡 '로켓'에서는 고음이 황홀했고 큰 스케일에 큼직한 연주를 선보였다. 피아노 바퀴와 연결된 바닥이 울릴 정도로 강렬했다. 3곡 '풍경'에서는 천천히 진정되는 가운데 고음의 공명이 인상적이었다. 4곡 '마제파'는 피아노음이 분산되는 울림이 마치 빛의 산란 같은 느낌으로 청중을 도취적인 세계로 몰고 갔다. 처음에서 연기가 날 듯했고 아티클레이션의 분절이 확실했다.

땀을 닦고 의자를 당긴 뒤 연주한 5곡 '도깨비불'에서 손민수는 가장 절묘한 진행의 한 가운데에서 미묘하고 섬세한 기운을 뿜어냈다. 6곡 '환영'에서 점층적으로 아르페지오가 강렬해졌다. 감전된 듯한 짜릿한 음악을 들려줬다. 7곡 '영웅'은 당당함이 돋보였다. 8곡 '사냥'은 악어떼를 찾는 사냥꾼의 거칠고 야생적인 시선이 느껴졌다. 9곡 '회상'은 감미롭다가 격렬해졌다. 10곡 '열정'은 신열에 들뜬 열정을 피아노로 조형해냈다. 건반이 부서져라 치는 속주는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였다. 11곡 '밤의 선율'은 안정적이고 두터운 선율 속에 여운을 남겼다. 마지막 12곡 '눈치우기'에서는 눈보라의 시린 온도감이 느껴졌다. 기립박수를 보내는 청중의 반응은 뜨거웠다.

19일 5시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국제콩쿠르 우승자들의 시그니처 콘서트'는 송지원(바이올린), 이정현(첼로), 손정범(피아노)의 멘델스존 '피아노 트리오 1번'으로 시작했다. 이정현의 첼



로가 그윽하게 훑을 채우자 송지원의 가녀린 바이올린과 손정범의 걱정적인 연주가 어우러졌다. 곡의 백미는 2악장 안단테였다. 자애로운 연주로 시작한 피아노와 두 현악기는 너무 빠르지 않게 템포를 충분히 음미하는 모습이었다. 바이올린과 첼로가 마치 한 악기처럼 아름답게 합쳐지며 심금을 울렸다. 3악장 스케르초는 툭툭 튀는 악동감의 피아노가 돋보였다. 4악장 피날레는 브람스를 연상시키는 두터운 악구가 이어졌고 격정적이고 리드미컬하게 어울렸다.

비올리스트 신경식이 가세한 브람스 '피아노 4중주 1번' 1악장은 피아노, 첼로, 비올라, 바이올린이 가을의 쓸쓸한 정서를 연주하는 듯했다. 주제 선율이 바이올린에서 피아노로 옮겨지며 가을을 만끽했다. 2악장 인터메초는 첼로가 깔아주는 짝 찬 연주에서 급박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3악장 안단테 콘 모토에서는 가을이 쏟아지듯 다가왔다. 찬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현의 두터운 앙상블 위로 피아노가 지나갔다. 4악장은 유명한 집시풍 론도였다. 피아노의 눈부신 속주 속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열정적인 피치카토와 피아노의 앙상블이 돋보였다. 피아노와 현악기의 질감은 오래된 가죽으로 된 지갑 같았다. 빠른 패시지도 능숙하게 처리하며 곡을 마쳤다. 앙코르는 슈만 피아노 4중주 중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였다. 연주를 보며 '기쁜 우리 젊은 날'이란 말을 떠올렸다.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는 22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백동훈(클라리넷), 장현성(바순), 김형주(호른), 한수진, 이우일(바이올린), 김규현(비올라), 이원해(첼로), 조용우(더블베이스) 등 BICmf 솔로리스트가 연주하는 슈베르트 '8중주'와 25일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송영훈, 심준호, 김대연, 이경준 등 송영훈과 친구들이 펼치는 BICmf 스페셜콘서트로 이어졌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전통의 멋

일 시 | 12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전통음악의 매력과 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KBS국악관현악단 상임 지휘자이자 이화여대 교수로 있는 원영석이 객원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대학교 김성준 교수의 피리 협연으로 들려주는 전통가락 '자진한 잎'과 오페라, 방송, 드라마 OST 등 다방면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신델라 with 델라 벨라 싱어즈의 '벚노래', '우리민요 메들리',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TV프로그램 '풍류대장'에서 절정의 인기를 모았던 국악밴드 AUX의 '새타령', '까투리', '밀양아리랑' 등 열정과 개성 넘치는 무대에 이어 'Happiness', '고래의 꿈', '바다' 등 다채로운 국악관현악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 지휘/원영석

제1235회 MBC목요일음악회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제33회 정기연주회
아틀란틱으로부터

일 시 | 12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사)문화도시네트워크 760-1494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 교수를 중심으로 파워풀 하면서 호소력 있는 연주를 펼치고 있는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의 무대. 지난 1998년 결성된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은 특히 뉴욕링컨센터 삼일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음악회, 위안부기림비 추모음악회 등 대한민국 독립에 관한 음악과 메시지를 전하는 연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아틀란틱으로부터'라는 주제로, 대서양 문화권의 작곡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 음악감독, 리더/박경희
- 바이올린/백재진, 진혜빈, 정현진
- 색소폰/심삼중
- 작곡/권태우 • 해설/전명희

TDC앙상블 정기연주회
고전을 담은 낭만 실내악

일 시 | 12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TDC앙상블 010-9332-4207

'Ten Dollars Club'의 약자로, 월 1만원의 기금들을 모아 끼니를 굶는 초·중생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소속의 전문 클래식 연주단체인 TDC앙상블의 무대.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지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부산 출신의 실력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TDC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고전의 형식미와 낭만적 시정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두 작곡가 그리그와 드보르자크의 실내악 작품을 통해 고전을 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스타일의 낭만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 해설/김후란 • 피아노/고영주
- 바이올린/금성빈, 오근영
- 비올라/유정주 • 첼로/이지수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시네마 필름 콘서트
러브레터&냉정과 열정 사이

일 시 | 12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영화 속 감미로운 OST로 시간 속에 갇힌 우리의 추억을 재소환하는 감성 시네마 필름 콘서트 '러브레터&냉정과 열정 사이'. 이번 무대에서는 이루지 못한 옛사랑을 다룬 두 편의 영화 속 가장 아련하고 애뜻했던 장면을 오

케스트라가 빛어내는 라이브 선율로 감상하며 차갑고도 뜨거웠던 첫사랑의 감정과 기억을 마주할 수 있다.

음악감독 안두현이 지휘하는 아르츠심포니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이현진, 첼리스트 박건우, 기타리스트 김진택 등이 출연, 두 작품의 주옥같은 명곡들과 명장면을 테마별로 재구성하여 라이브 연주로 들려준다.

부산시립무용단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디딤 & STEP'
홀로홀춤 Vol. 2

일 시 | 12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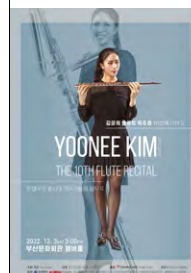
부산시립무용단의 고유성과 정통성을 재정립하고 단원들의 춤 안무가로서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디딤 & STEP'. 우수한 춤 작가로서의 안무가를 향해 한 걸음 옮겨 걷는 단원들의 첫 디딤으로, 단원 박창희, 윤은하, 전혜련, 김주연, 이현주, 허태성의 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 엄옥자류 산조춤(박창희), 한영숙류 태평무(윤은하), 엄옥자류 외손 부채춤(전혜련), 이매방류 검무(김주연), 이매방류 살풀이춤(이현주), 고성오광대 문동복춤(허태성)
• 사회/이정윤(예술감독)

제10회 김윤희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12월 3일 토요일 오후 3: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The Yoon 010-6516-9838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신만의 스타일과 음악으로 매년 관객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플루티스트 김윤희 독주회.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재학 중 도미, 신시내티 음악대학과 오하이오 주립대학

교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전액장학생으로 졸업하고 귀국 후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관현악 지휘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윤희는 국내외 우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유학 중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회를 가진 바 있다.

신선하고 새로운 컨셉의 테마로 관객들과의 꾸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김윤희는 이번 무대에서 백은숙, Catherine McMichael, 다니엘 핑크행, 양성남, 요한 크반달, 폴랑크 등 현대곡과 동시대 작곡가들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김수민

부산솔리스트앙상블 제2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4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 의 | 부산솔리스트앙상블 010-7315-7532



부산, 경남지역의 성악계를 대표하는 정상급 남성 성악가 70여 명이 들려주는 부산솔리스트앙상블 2022년 무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12월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한 무대에 서은 부산솔리스트앙상블은 그동안

가곡, 오페라합창곡에서부터 성가, 민요에 이르기까지 남성 특유의 웅장한 하모니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왔다.

- 지휘/이병직
- 피아노/윤민화, 이경미
- 타악기/하경륜
- 소프라노/박나래, 신정순
- 바리톤/동명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줌인(Zoom-In)

일 시 | 12월 4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개인별 우수한 기량을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부산시향의 줌인(Zoom-In)'. 이번 무대에서는 첫 주자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대표하는 임흥균 악장이 통찰력 있는 음악성과 견고한 연주로 주목받는 부산 출신의 피아니스트 홍민수와 함께 슈베르트, 코른골트, 루토스와프스키, 프랑크의 대표적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들려준다.

프로그램
 슈베르트/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137 중 제3번
 코른골트/“헛소동” 모음곡 중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소곡
 프랑크/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9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일 시 | 12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올 한해를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송년무대. 수석지휘자 이명근의 지휘로, 인류 최고의 걸작으로 호평받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연주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왕기현, 알토 양송미, 테너 황병남, 베이스 김동섭이 솔리스트로 참여하며, 부산대학교 합창단과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이 웅장한 합창무대를 선사한다.

모든 교향곡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작품이자 대규모 합창단과 솔리스트들이 참여하는 대곡이기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창단 후 처음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지휘/이명근(수석지휘자)

2022 손한별의 음악공방 IV Modern Texture

일 시 | 12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문 의 | 손한별 010-6645-156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이자 HOS Music 대표, 778크로스오버밴드 그랑소울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금주자 손한별의 무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손한별은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 제20호 대금정악 전수자, 제45호 대금산조 전수자이자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4호 삼현육각 대금 이수자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객원교수,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예술영재교육원 강사로 있다. 손한별은 제15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했으며, 손한별의 대금정악 1~VI 등 6개의 음반을 출반한 바 있다.

이번 무대는 연주자 본인이 직접 작곡한 대취타 주제의 의한 2중주 '影'을 비롯해 작곡가 주소는, 박상후, 조수임, 송정환의 창작곡 무대로 꾸며진다.

부산시립합창단 창단50주년 기념공연 및 제188회 정기연주회 하이든 천지창조

일 시 | 12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올해로 창단 반세기를 맞은 부산시립합창단이 창단 50주년을 기념하고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해 12월 헨델의 '메시아'에

이어 열리는 부산시립합창단 오라토리오 사이클 두 번째 무대로, 유려한 독창과 극적인 합창의 조화가 돋보이는 '천지창조'로 송년의 아쉬움을 달랠다.

- 지휘/이기선(예술감독)
- 연주/UKO(음악감독/최영화)
- 소프라노/김승연 • 테너/황병남
- 바리톤/이광근 • 베이스/문동환

K-ARTS 무용단 부산공연 Experiment No.1

일 시 | 12월 9일 금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공연기획실 02-746-9354



지난 1997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무용원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창단한 후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세계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K-ARTS 무용단' 부산공연.

이번 무대에서는 한예종 무용원 실기와 현대무용 예술사 재학생들이 출연, 이스라엘 안무가 Shahar와 협업한 'Bolero 2022'를 비롯해 'White Lie'(안무/정다연), 'We are safe now'(안무/정지원), '--사이의 영역--'(안무/김도연), '러닝타임 9분 18초'(안무/박진주), 'Metamorphosis Diary'(안무/Alicia Pak), 'DU tian-lun / DU tian-lun'(안무/강성룡), 'tHE bAD'(안무/Hofesh Shechter) 등 8작품을 선보인다.

고신클라비어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고신클라비어 010-3311-0153



고신대학교 피아노전공 졸업생들로 구성된 고신클라비어의 세 번째 정기 연주회.

지난 2010년 1월 창단된 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음악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관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를 선사해온 고신클라비어는 이번 무대에서 'Christmas with Baroque'라는 주제로, 크리스마스 와 잘 어울리는 바로크음악을 들려주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즐거운 성탄곡으로 흥겨운 연말무대를 선사한다.

- 출연/안선애, 장진이, 김현경, 이지원, 김미영, 김현정, 최여진, 강현아, 윤선훈, 조성희, 류희영, 최선경, 선아름, 정은경, 이수진, 임예주, 정가희, 최폴린
- 게스트/정승찬, 양재원, 우원석, 정은미, 이용빈

브라부라 색소폰앙상블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

일 시 |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문 의 | 브라부라 색소폰앙상블 010-5502-7982



지난 2002년 창단한 후 보다 화려한(Bravura) 연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브라부라 색소폰앙상블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

브라부라 색소폰앙상블은 창단 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산장음악회, 부산생활음악축제,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지공연, 부산평화영화제 개막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해왔다.

- 연주/조악래, 임대권, 김영삼, 이동호, 윤동철, 송동현, 류성식, 신정현, 박상운, 최진석, 남궁성, 최지환, 조영복
- 피아노, 퍼쿠션/이갑석, 정세운
- 세트드럼, 마림바/윤미희
- 트럼펫/이상용 • 첼로/정서은
- 사회/박시현

부산피아노트리오 정기연주회 낭만을 향하여

일 시 |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부산피아노트리오 010-4400-7038



1962년 창단 이래, 국내 최장수 실내악단의 전통을 이어온 부산피아노트리오의 무대.

부산피아노트리오는 지난 2005년 고신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권준,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있는 첼리스트 이일세 등 새로운 멤버로 교체된 후 다양한 시대와 스타일의 피아노3중주를 아우르며 크고 작은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며 실내악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낭만주의로의 이행을 주제로 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와 훔멜, 슈만의 피아노삼중주를 들려준다.

아르스 콰텟 제21회 정기연주회 아르스와 떠나는 북유럽 음악여행

일 시 | 12월 11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학생, 예술인패스 소지자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 서은아, 비올리니스트 이성호, 첼리스트 하경희로 구성된 아르스 현악4중주단의 무대.

아르스 현악4중주단은 지난 2001년 창단 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산 MBC 창사기념 '목요음악회' 초청연주, (사)부산음악협회 주최 '실내악 축제', 부산시립미술관 초청연주, 갤러리 자미원 초청 '송년음악회', 봉생병원 '환우와 가족을 위한 음악회',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리그의 유일한 현악4중주곡인 '바이킹', 그리고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은 프랑크의 유일한 피아노 5중주곡을 경성대학교 조현선 교수와 함께 들려준다.

D.U. Chamber Orchestra 겨울의 꽃&새로운 시작

일 시 | 12월 11일 일요일 오후 7:30 **챔버홀**
 문 의 | D.U. 챔버 오케스트라 010-8865-1705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기악부 출신의 선, 후배들로 구성된 현악 챔버 오케스트라인 D.U. Chamber Orchestra의 무대.

D.U. Chamber Orchestra는 지난 2020년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동의동락프로젝트 축하연주, 2021 동래구 생활문화제, 스페이스 움 '함께 나누는 음악이야기', 금정문화재단 '뚝뚝뚝 찾아가는 문화드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프로그램**
- 그리그/훔베르그 모음곡 작품 40
 바흐/신포니아 콘체르탄테 W.C 34
 블로흐/콘체르토 그로소 B.59
 빌라 로보스/브라질풍의 바흐 4번
- 지휘/곽세연
 - 바이올린/안은탁 • 첼로/이일세

부산문화 Adieu 2022 최성수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공연기획사 '부산문화'가 매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의미를 담아 마련하는 2022 송년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싱어송라이터 최성수와 함께 마스카니 국제성악콩쿠르, 한국성악콩쿠르에서 우승하고 현재 부산교대, 울산대, 부산예고 외래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박현정, 엔리소 카루소 국제콩쿠르 동양인 최후 우승자이자 현재 오페라단 나눔 단장으로 있는 테너 이철성, 그리고 재즈 피아니스트 임미성, 재즈 피아니스트 허성우, 현악사중주 포르투나 앙상블(바이올린 박미정, 홍기정, 김다경, 이상엽, 피아노 하수민)이 출연, 송년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이태석 신부 탄생 60주년 기념 용마코러스 제6회 정기연주회 슈크란 바바

일 시 |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문 의 | 용마코러스
010-9667-7474, 010-4878-8421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남고등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동문합창단인 용마코러스의 6번째 정기연주회.

특히 이번 무대는 경남고등학교 동문으로,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다간 '한국의 슈바이처'故 이태석 신부 탄생 60주년을 맞아 그를 기리고 추억하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제목인 '슈크란 바바'는 수단어로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뜻

- 지휘/조성빈 • 피아노/박소미
- 사회/김경진
- 게스트/김지윤(바이올린), 비타노바 중창단, CCC(클라리넷 유지훈, 김정민·피아노 유혜진)

진혜빈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다루예술기획 010-3795-3009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역 장학생으로 졸업한 후 도독,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최고점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이올리니스트 진혜빈 귀국 독주회.

진혜빈은 일찍이 부산음악협회 콩쿠르 전체대상을 비롯해 한국음악협회

콩쿠르 등 다수 콩쿠르에서 1위 입상했으며, 자포제 심포니 오케스트라, 유니타이트 코리아 오케스트라,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음악적인 기량을 인정받았다.

부산콘서트필요오케스트라 수석, 유니타이트 코리아 오케스트라,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레이디스필 앙상블, 무지카비바 앙상블, 앙상블 Fleur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진혜빈은 이번 무대에서 르클레어 바이올린 소나타 'Tombeau'를 비롯해 드뷔시, 슈만, 프로코피예프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박소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청년희망날개프로젝트 부산, 노래로 하나되다

일 시 | 12월 14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열정과 재능을 갖춘 지역 청년예술인을 발굴하고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재)부산문화회관이 마련한 청년희망날개프로젝트.

1부 오디션 합격자들의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부산성악가협회의 선배

성악가들이 참여하여 첫발을 내딛는 후배 성악가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김경희(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연주/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 소프라노/류가은, 오예은, 김민정, 이지현
- 메조소프라노/이유진
- 테너/김민성, 강도호, 안학범
- 베이스/박순기

부산YWCA 여성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마음이 기억하는 그 이름, 가족

일 시 | 12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부산 YWCA의 여성 회원들로 구성된 부산 YWCA 여성합창단의 정기연주회. 부산YWCA합창단은 그동안 15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 다양한 무대에서 시민들과 소통해왔으며, 제2회 부산세계합창올림픽 본선에서 동메달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한 실력있는 여성합창단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마음이 기억하는 그 이름, 가족'이라는 타이틀로, 고전음악에서부터 가곡까지 음악이 주는 공감과 위로를 시민들과 함께 한다.

- 지휘/손동연 • 피아노/이주화
- 베이스/구본수
- 반주/플루트 챔버 오케스트라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사라장 & 비르투오지

일 시 |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세계 최정상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 부산공연 '사라 장 & 비르투오지'.

특히 3년만에 내한하는 이번 무대에서 사라 장은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 비올리니스트 이한나, 첼리스트 심준호, 더블베이스 성민재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솔리스트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수준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비탈리/샤콘느 g단조
바흐/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장조, BWV 1043
비발디/사계

제5회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문 의 |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
010-2831-2836



플루티스트 정욱경을 중심으로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로 구성된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는 지난 2016년

창단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는 물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등 음악을 통한 봉사활동을 통해 재능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리그, 치마로사, 레하르, 쇼스타코비치, 모차르트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뮤지컬, 가요 등을 들려준다.

- 음악감독, 지휘/정욱경
- 플루트 협연/박시경, 김정희, 오성애, 류주영
- 게스트/박아론(퍼쿠션), 권순정(피아노)

한가지꿈음악연구소 정기연주회 겨울밤 낭만을 수놓다

일 시 |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한가지꿈음악연구소 783-4206



한가지꿈음악연구소 회원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강성열, 박지선, 이지은, 바이올리니스트 채송화의 무대.

한가지꿈음악연구소 대표이자 동아대학교 콘서트바토리, 동서대학교 대학원 외래교수로 후진양성에 힘써온 피아니스트 김정희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의 제1세대 음악인 김국진 선생의 부산초연작 '피아노 산조 VI', 부산에서 활동 중인 여성작곡가 전민영의 'Piano Suite 르노아르의 그림이 보이는 음악', 'Violin Suites 회상(回想)' 등 창작곡과 쇼팽, 몬테, 베토벤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강성열, 박지선, 이지은
- 바이올린/채송화
- 특별출연/김정희(피아노)

2022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합창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문 의 | 동아대학교 200-1758, 1760

지난 1966년 12월, 부산 최초의 음악대학으로 첫발을 내딛은 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2022 합창정기연주회.

동아대학교 음악학과는 매년 재학생들의 기량 향상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합창, 오케스트라, 작곡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과 소통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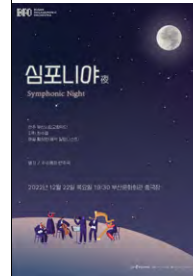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로 있으며 동아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는 지휘자 임희준의 지휘로, 현존하는 미국 출신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스티브 드보르그스의 'Mass'를 비롯해 다채로운 합창곡을 들려준다.

특히 팝과 재즈 느낌이 가득한 'Mass'는 미사곡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종교적인 색채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정로의 대중적인 곡으로, 관객들에게 송년 분위기를 선사한다.

- 지휘/임희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포니아역

일 시 |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5회 정기연주회를 공연 전 날 미리 만날 수 있는 부산시향의 심포니아역.

연주 시작 전 음악칼럼니스트로부터 연주곡에 대한 에피소드와 해설을 통해 무대를 더욱 깊이 감상할 수 있어 음악학도와 클래식 매니아층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최수열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이자 음악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꼼꼼하고 진지한 해설로 두터운 팬을 확보하고 있는 황장원 칼럼니스트가 해설을 맡아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에 대한 곡의 이해를 돕는다.

- 해설/황장원(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 지휘/최수열(예술감독)

치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제2회 트리오 파첸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트리오 파첸 010-3885-6600



바리톤 배용과 한성권, 테너 양수배로 구성된 남성 3중창단인 트리오 파첸의 무대.

생활음악인으로 끊임없이 공부하며 연주하는 성악인으로, 지난해 창단 후 크고 작은 무대에서 시민들과 가깝게 소통해온 트리오 파첸은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친근한 캐럴과 가곡, 그리고 오페라 아리아와 대중가요를 삼중창, 이중창, 독창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고향의 노래, 목련화, 그리운 금강산, 그대 창밖에서, 내 맘의 강물, 향수, 떠나가는 배, 사랑이여, 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주의 기도, 만물박사의 노래(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레하르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등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일 시 |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24일 토요일 오후 3:00,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4인 가족 이상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해 연말,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으로 큰 화제를 모은 '크리스마스 캐롤' 2022년 무대.

찰스 디킨즈 원작 '크리스마스 캐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크리스마스 캐롤'은 극을 이끌어가는 부산시립극단을 비롯해

시립합창단,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160여 명의 출연진이 참가하는 대작으로,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 재구성, 연출/김지용(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 작곡, 편곡/백현주
- 지휘/이기선(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5회 정기연주회 동반자

일 시 |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올해 창단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이 2022년을 마무리하며 갖는 제595회 정기연주회.

최수열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20세기 영국 중흥기를 이끌었던 작곡가 엘가와

브리튼의 작품으로 꾸며진다. 특히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올림픽 찬가를 부르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스포트라이트 황수미가 호르니스트 이석준과 호흡을 맞춘다.

프로그램

브리튼/세레나데
엘가/수수께끼 변주곡
• 지휘/최수열(예술감독)

부산시민회관

연세대학교 동문음악회 in 부산
한국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7:00 **챔버홀**
문 의 | yj클래식스 010-6307-6885

부·울·경에서 활동하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동문들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 '한국가곡과 아리아의 밤'.

1부 한국가곡에 이어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오페라 아리아로 저물어가는 2022년 송년의 아쉬움을 노래로 달랜다.

- 소프라노/조윤정, 박지혜, 이지현, 오예은
- 테너/안학범, 최용석
- 바리톤/시영민, 김우주

제19회 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27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문 의 | 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 513-5594

매년 정기연주회뿐 아니라 합창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일상 속 합창을 통한 힐링을 노래해온 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의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현대 여성합창, 바다, 우리의 인생, 혼성합창 등 다양한 주제의 합창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현대 여성합창/Lux Aeterna, Each of us, Jambo, Sing Wearing the Sky

바다/해녀의 삶, 바다

우리의 인생/인생, 친구여

혼성합창/남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거죠, 제비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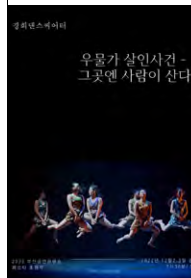
- 스페셜 게스트/J Choir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경희댄스시어터 우물가의 살인사건-그곳엔 사람이 산다

일 시 | 12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3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그동안 장르에 경계를 두지 않는 현대무용 작업을 펼쳐온 경희댄스시어터의 창작무대 '우물가의 살인사건-그곳엔 사람이 산다'. 이번 작품은 일제강점기, 회동수원지댐 건설공사(1940-1942)로 논밭과 집이 수몰되어 생계수단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농민들의 울부짖음과 절규를 담은 창작무대이다.

지난 2016년에 창단한 경희댄스시어터는 안무가 박재현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단체만의 색깔과 개성 있는 움직임으로 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다.

- 연출, 안무/박재현

제9회 에델현악사중주단 정기연주회
친근한 목소리

일 시 | 12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에델현악사중주단 010-5880-3996



세계 각 나라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정진경, 손혜림과 비올리스트 강수이, 그리고 첼리스트 김혜지로 결성된 에델현악사중주단의 무대.

'우아하다'라는 뜻을 지닌 에델현악사중주단은 클래식 음악이 가진 고귀한 아름다움을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지난 2019년 12월 첫 무대를 가진 후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현재 부산극동방송의 전속 현악사중주로 선정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에델현악사중주단은 이번 무대에서 핀란드의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현악사중주곡 '친근한 목소리'와 함께 노르웨이의 작곡가 그리그의 현악사중주를 들려준다.

부산발레시어터 호두까기 인형

일 시 | 12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31일 토요일 오후 2:00, 6:00 **중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4만원(48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부산발레시어터 513-7779



지난 2014년 설립된 후 부산을 기반으로 창작공연부터 클래식 전막 발레 공연까지 폭넓은 작품활동을 펼쳐온 부산광역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인 부산발레시어터의 '호두까기 인형'.

부산발레시어터는 그동안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으며,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발레의 예술적 가치를 향유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앞장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 극작가를 장식하는 고전발레의 대표작 '호두까기 인형'을 통해 2022년을 마무리하며 따뜻한 감동을 전한다.

- 예술감독, 재안무/정성복

아세안 어린이 공연 시리즈
앵글 개굴개굴 고래고래

일 시 |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KF아세안문화원 775-2000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주제로 열렸던 '2022 아세안 어린이 공연 시리즈' 앵글 무대 '개굴개굴 고래고래'.

베트남의 전래동화 '개구리가 울면 왜 비가 내릴까?'를 바탕으로 제작된 '개굴개굴 고래고래'는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숲과 목마른 동물 친구들을 위해 용감한 개구리 '구르구르'가 비를 내려줄 고래 선생님을 찾아 떠나는 모험이야기로,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고통받는 자연과 물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특히 신명나는 판소리와 상상력을 일깨워주는 그림자극이 융합된 공연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신나는 울동과 동요로 친근하게 다가간다.

평화통일 기원음악회 아름다운 동행

일 시 | 12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6세 이상 관람)
 문 의 | (사)이지무스오페라단 010-9550-4649



2022년 부산광역시 평화통일 문화행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평화통일 기원음악회 '아름다운 동행'.

- 부산지역 성악가들과 합창단이 아름다운 우리곡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총기획/손옥 • 지휘/윤상운
 - 해설/김성민 • 합창지휘/권영기
 - 바리톤/박대용 • 테너/김준연
 - 소프라노/한인숙, 양근화, 이지은
 - 메조소프라노/성미진
 - 팝소프라노/손유경
 - 연주/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예그린합창단,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뮤지컬 알사탕

일 시 | 12월 9일 금요일 오후 4:00, 10일-11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7일-18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소극장**
 입장료 | 동등이석 5만원 (24개월이상 관람, 온라인 예매시 30% 할인)
 문 의 | ㈜씽크브릿지 1533-7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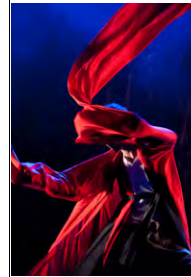


지난 2020년,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작가 백희나의 동명의 그림책을 뮤지컬로 제작한 '알사탕'.

- 누구에게도 쉽게 말을 건네지 못하는 어린이 동동이 문방구에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비한 알사탕 한 봉지를 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알사탕'은 기발한 상상력과 넘치는 유머, 그리고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준다.
- 원작/백희나 • 대본/전수양
 - 음악/장희선 • 연출/홍승희

박성호무용단 고목(古木)그 향기의 흐름

일 시 |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문 의 | 박성호무용단 010-5756-7976



2009년부터 춤과 악, 극과 탈을 통합시킨 춤탈극이라는 특별한 공연 형식으로 관객과 만나온 박성호무용단의 창작춤판. 지난 2002년, 부산KBS 무용콩쿠르 창작부문 금상, 제33회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종합차석상(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하고 현재 부산시지정무형문화재 제14호 동래한량춤 전승교육사로 있는 박성호를 대표로, 젊은 춤꾼 20명으로 구성된 박성호무용단은 그동안 우리 전통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 춤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예능보유자로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명인 원향 엄옥자의 춤 예술세계를 만날 수 있는 창작무 '고목(古木)그 향기의 흐름'을 선보인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스탠딩에그x소란 콘서트

일 시 |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감성 인디밴드 스탠딩에그와 팝과 모던록을 추구하는 4인조 밴드 소란이 함께하는 연말 콘서트 무대. 2010년 결성된 스탠딩에그는 그 해 서울재즈페스티벌 특별공연을 통해 데뷔한 후 제7회 멜론뮤직어워드 인디부문, 제11회 가온차트 뮤직 어워드 올해의 파퓰러 싱어상을 수상했다. 에그 1호, 에그 2호, 에그 3호 등 3명의 멤버가 예명으로 활동하며, 노래는 주로 객원보컬이 맡고 있다. 2010년 데뷔한 밴드 소란은 수준 높은 연주를 기반으로, 그동안 소극장 정기공연 'Perfect Day'와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하는 여름 콘서트, 압도적인 스케일과 과감한 연출의 겨울 콘서트까지 다양한 무대를 통해 팬들과 만나오고 있다.

2022 한국춤프로젝트 가마 2nd Project 춤집이다

일 시 |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사전예매시 50% 할인)
 문 의 | 한국춤프로젝트 가마 010-8577-6429



부산의 옛 이름을 딴 한국춤프로젝트 가마의 두 번째 프로젝트 무대. 지난 2018년 창단된 가마는 질그릇을 구워내는 '가마'처럼 새로운 춤 언어를 만들고, 음식을 익히고 우려내는 '가마'처럼 깊이를 가지고 춤에 정진하며, 인체 중 머리의 중심부인 '가마'처럼 우리 춤의 중심을 찾고자 한다. 이동수단인 '가마'처럼 전통과 현대를 잇는 공연으로 관객과 소통하고자 하는 가마는 이번 무대에서 우리의 전통춤을 현 시대 한국춤 전공자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어갈지에 대한 화두를 갖고 기획한 창작춤 무대로, 나레, 능선, 동살풀이, 신선, 별탈복춤, 활검무, 고고무 7가지 창작춤을 선보인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유진과 유진

일 시 | 12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31일 토요일 오후 2:00, 7:00 **소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세상의 많은 '유진'과 우리 모두에게 섬세한 공감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뮤지컬 '유진과 유진'. 한국 본격 청소년문학의 문을 연 이금이 작가의 대표작이자 수많은 독자들과 울고 웃은 레전드 스테디셀러인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유진과 유진'은 아동 성폭력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지나치게 무겁지도, 그렇다고 가볍게 다루지도 않으면서 호평 받았다. 특히 이 작품은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의 첫 뮤지컬 작곡 도전작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 원작/이금이 • 각색/김솔지
- 연출/이기쁨 • 작곡/안예은
- 출연/홍나현, 임찬민

음악

김영임&김용임이 함께하는 희희낙락

일 시 | 12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금정문화회관이 2022년을 보내는 아쉬움을 담아 마련하는 송년무대. 이번 무대는 중장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국악 대모 김영임과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여왕 김용임이 함께하는 무대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악과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트로트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우리 가락의 대중성과 전통성의 만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김영임의 '정선아리랑', '한오백년', '민요 메들리'에 이어 김용임이 들려주는 '열두줄과 '부초 같은 인생', '사랑의 밧줄', '빙빙방', 그리고 경기민요 이수자인 고금성과 경기민요 소리꾼 전영량이 출연,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를 통해 우리의 흥과 멋을 선사한다.

제14회 영도구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영도구립여성합창단 419-5562



합창을 매개로 한 음악적 봉사활동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해온 영도구립여성합창단의 14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1993년 창단 후 2012년 구립합창단으로 승격된 영도구립여성합창단은 그동안 부산 어머니 합창페스티벌, 부산국제합창제, 전국합창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 수상을 통해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Love is...'라는 주제로, '룩스 에테르나(Lux aeterna)' 등 따뜻한 사랑을 노래하는 다양한 합창곡을 들려준다.

- 지휘/김민지 • 반주/김혜민
- 특별출연/바리톤 이재원, 앙상블 Morgen, 앙상블 BON, 퍼커션 김인수
- 사회/이유진

조아콰이어 제6회 정기연주회 4인4색 합창콘서트

일 시 | 12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조아콰이어 010-3647-4862



부산지역 출신의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된 여성합창단 조아콰이어의 무대. 지난 2016년 1월에 창단한 조아콰이어는 그동안 여성 특유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으로 클래식에서부터 대중음악, 국악, 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합창곡을 들려주고 있다. 최근 SBS 프로그램 '싱포드에' 출연하여 합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사한 조아콰이어는 이번 무대에서 전진, 최현욱, 김석중, 이승현 등 4인의 지휘자와 함께 다채로운 합창음악을 선사한다.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음악회

일 시 | 12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예매시 20%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 전쟁지역의 전쟁 종식을 기원 하는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음악회'.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의 주립 교향악단인 체르니우치 필하모니 단원 중 16명의 수석연주자로 구성된 체르니우치 필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국내 연주자들과의 합동공연으로 우크라이나의 국민 작곡가 미로슬라브 스킨코의 'Melody to the people of Ukrain'을 비롯해 엘가, 쇼팽, 토스티, 야나체크 등 다양한 곡을 통해 우크라이나만의 독특한 감성과 음악성을 느낄 수 있다.

- 지휘/김현국
- 바이올린/프리훗코 안젤라
- 피아노/김해리 • 소프라노/김시하

정주연 열세 번째 플루트 리사이틀 Flute, be with You

일 시 | 12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Korea wind consort 멤버, KNN방송교향악단 단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정주연 독주회. 부산예고를 졸업하고 도미, 뉴욕청소년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며 수차례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한 바 있는 정주연은 듀케인대학교에서 철학, 미술, 사회학, 종교학 등 다양한 학문을 수학하여 음악적 소양을 넓혔으며, 재학 중 듀케인대학교 Concerto Competition에서 우승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르톡의 '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루마니아 춤곡'을 비롯해 푸올, 파올로 타발리오네, 요아킨 앤더슨의 작품을 들려준다.

- 기타/김경태 • 피아노/안준희

음악풍경 창립 9주년 기념 제43회 짜장콘서트 그때그노래들

일 시 | 12월 3일 토요일 오후 3:30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입장료 | 전석 2만원(사전예약, 선착순 50명)
 문 의 | 음악풍경 010-3091-1524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대표 강병열)이 창립 9주년을 맞아 마련한 제 43회 짜장콘서트. '그때 그 노래들'이라는 타이틀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과거 짜장콘서트에서 연주된 레퍼토리 중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노래만을 모아 재연(再演)한다.

프로그램
 불꽃탱고, 꽃구름 속에, 이 꽃에서 저 꽃으로(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목련화, 입맞춤, 이별 등

- 진행/이진이
- 소프라노/정혜리, 김민성
- 테너/양승연 • 바리톤/시영민
- 연주/앙상블 프로뮤지카(바이올린 원아름, 첼로 문혜정, 피아노 정은희)

스페이스 옴 음악회

일 시 | 2일(금), 9일(금), 15일(목), 22일(목),
30일(금) 오후 7:30 **스페이스 옴**
문 의 | 스페이스 옴 557-3369

2일(제480회) 정혜민 & 강대현 듀오 연주회 'Contrabasso & Klavier'

울산대학교 관현악과를 졸업하고 코리아경남심포니, USP챔버오케스트라, UKO오케스트라 선사인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콘트라베이스스트 정혜민과 인제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석사),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박사)을 졸업하고 부산현대음악앙상블 단원, 송국클럽하우스 음악교문, 천마피아노연구회 회원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강대현의 듀오 무대.



9일(제481회) 슐블리트리오가 함께 나는 모든 계절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과 비올리스트 김가민, 피아니스트 이해경 등 클라리넷과 비올라, 피아노의 흔치 않은 앙상블의 조합으로 관객과 만나온 슐블리트리오의 무대.

지난 2015년 첫 연주를 시작으로 그동안 정기

연주회, 기획연주회, 레저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슐블리트리오는 지난 2017년 부산마루국제음악제에서 부산음악인으로 선정되며 팀의 저력을 입증한 바 있다.

한해를 보내며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비발디와 피아졸라의 <사계>를 통해 지난 8년간 숨가쁘게 달려온 그들의 여정을 돌아켜 보는 시간을 갖는다.



15일(제482회) 연세영 작가의 '북콘이랑 삽화랑'

케빈 컨, 이사오 사사키, 마이클 호페 등 세계적인 거장들과 나란히 합동공연을 펼치며 자신의 입지를 단단하게 세운 연세영(데이드림)의 무대.

연세영은 그동안 음악, 미술은 물론 문학까지 섭렵하며 각 분야에서 탁월한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다재다능한 문화예술인으로 전 세계를 누벼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연세영이 지난 7월에 발간한 퓨전역사소설 '오! 북관'의 북콘서트로 진행된다.

• 진행/김은정(꽃피조민스김 대표)
22일(제483회) 북&뮤직 콘서트 '동시, 동화 옴과 함께하다'



부산아동문학상, 울산동요대상, 한국동요대상 등을 수상하고 부산문화재단의 '올해의 문학'에 선정된 안덕자 작가와 함께하는 북&뮤직 콘서트.

권유미, 김예진, 김시은 등 부산의 작곡가 3명으로 구성된 창작음악단체 'S:creative'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안덕자 작가의 동시와 동화를 주제로,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창작동요 및 가곡을 들려준다.



30일(제484회) 심장병 어린이들기 수와진과 함께하는 2022 송년음악회

지난 1985년 명동성당 앞에서 심장병 어린이들기 거리공연을 시작한 이후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국내외 수백명의 심장병어린이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도우며 노래로써 많은 이들의 가슴에 감동과 사랑을 전해온 가수 '수와진'이 심장병어린이들기기를 위해 마련하는 송년음악회.

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음유시인II 'JEWEL'

일 시 | 12월 4일 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문 의 | BMPO 070-7727-0188



지난 2009년 7월 창단 후 정통적인 클래식과 더불어 여러 장르의 음악과 다양한 시도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BMPO) 정기연주회.

BMPO는 지난 2011년 5월, 부산, 경남지역의 오케스트라로서는 최초로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았으며, 2012년 9월에는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됐다.

'음유시인(Troubadour)'이라는 주제로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테너 안세권, 베이스 바리톤 손태진, 소프라노 이연진이 출연, 오페라 아리아와 영화 OST, 민요 등 다채로운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 지휘/김영수

소프라노 강나래 독창회

일 시 | 12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강나래 010-5895-8052



'서정적이며 풍부한 감성의 호소력 짙은 소프라노'라는 호평을 받는 소프라노 강나래 독창회.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L.Ricce 국립음악원 오페라과 최고연주자과정, Accademia Musicale Internazionale

ARENA 최고연주자과정, Accademia Musicale A.M.I 전문 연주자, 조교과정을 수학한 강나래는 그동안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마농 레스코',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토스카' 등에 주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강나래는 현재 경성대학교 대학원 외래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안준희

2022 을숙도 예술공감

일 시 | 12월 6일(화), 19일(월)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천원(예매시 20%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부산을 거점으로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의 무대로 마련되는 을숙도 예술공감 12월 무대.

2022년을 마무리하며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6일 The Pianoble이 들려주는 'Merry Christmas with Santa Classic'에 이어 19일에는 해피앙상블의 '음악으로 떠나는 신나는 세계여행'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각 장르에서 뛰어난 감각과 실력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이들의 무대를 통해 한해를 되돌아보고 마무리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 2022

일 시 | 12월 7일 수요일 오후 7:30, 8일-9일 목-금요일 오후 3:30, 7:30, 10일-11일 토-일요일 오후 3:30, 7:00

백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문의 | 그라시아스 합창단 1899-2199



유럽 국제합창제 대상에 빛나는 그라시아스합창단과 풀 오케스트라가 펼치는 수준높은 무대 '크리스마스 칸타타 2022'.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2009 제주국제합창제 대상, 2014 스위스 몽트뢰 국제합창제 혼성부문

1등상, 최우수관객상, 2014 이탈리아 리바 델 가르다 국제합창대회 대상, 2015 독일 마르크트오버도르프 국제합창대회 최고상, 특별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명성의 합창단으로, 그동안 환상의 하모니와 뛰어난 감성, 호소력 짙은 연기, 그리고 따뜻한 메시지로 세계인을 사로잡아왔다. 3년만에 돌아온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와 뮤지컬, 합창이 어우러진 감동의 무대로, 2천년 전 베들레헴으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12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올해로 1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금정수요음악회 12월 무대로, 2022년을 마무리하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이선화 & 김유빈
Soprano Lee & Yoonjin Kim Joint Recital
조인트 리사이틀

2022. 12. 7 수요일 오후 7:30PM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7일(800회) 김유빈, 이선화 조인트 리사이틀
피아니스트 김유빈, 이선화의 피아노 듀오 무대. 브람스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등 두 대의 피아노가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로 이어지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14일(801회) 부산양금양상블 '和音(화음)'
한국전통음악의 유일한 타현악기인 양금을 알리기 위해 구성된 부산양금양상블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양금과 가야금산조 병주 '김죽파류'를 비롯해 양금의 매력을 전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곡으로, 특히 코끝이 시린 겨울 속에서 유난히 더 맑은 양금의 울림을 감상할 수 있다.



2022. 12. 21 수요일 오후 7:30PM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21일(802회) 심정운 피아노 리사이틀 '브람스 frei aber einsam'
새로움을 발굴하고 신선한 충격을 맞이함에 끝없는 의지를 가진 피아니스트 심정운의 무대. 브람스 '피아노 소나타 제 3번 바단조 작품호 5'를 비롯해서 겨울과 어울리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2022. 12. 28 수요일 오후 7:30PM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28일(803회) 시노두스 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 연주회 '실내악의 향연'
부산, 경남지역의 해군군악대 전우회로 구성된 시노두스 심포니오케스트라의 무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등 5개 악기가 빛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감상할 수 있다.

- 바이올린/서은아, 오근영
- 비올라/윤슬샘 • 첼로/우리라
- 플루트/유주영 • 클라리넷/이한석

피아니스트 스미노 하야토 첫 내한 리사이틀 전국투어 in 부산

일 시 | 12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드림씨어터

입장료 |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A석 5만5천원, B석 3만3천원

문의 | 또모 02-540-2706



세계가 주목하는 천재 피아니스트 스미노 하야토의 첫 내한공연. 일본 도쿄대 공대생으로, 대학원에 다니던 중 2018 PTNA 피아노 콩쿠르에서 특급 그랑프리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음악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하야토는 2017년 아시아 쇼팽 국제콩쿠르 금메달 수상을 시작으로, 2019년 리옹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3위 입상하며 그 해 12월, 일본 5개도시 첫 단독 리사이틀을 가지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의 상징과도 같은 쇼팽의 작품을 비롯해 자신이 직접 편곡한 클래식 곡과 자작곡, 미발표곡까지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2022 을숙도 청년예술인을 위한 콘서트 시리즈 IV 겨울, 가야금이 내리다 with 소리줄

일 시 | 12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천원(예매시 20%할인)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2022. 12. 08 수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을숙도문화회관이 부산 지역 청년예술가들을 위해 마련한 청년예술인을 위한 콘서트 시리즈 네 번째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젊은 가야금연주자들로 구성된 소리줄이 가야금 연주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민요부터 외국의 민속 음악, 신나는 캐럴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가야금의 아름답고 풍부한 음색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강대현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2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강대현 010-4691-4994



2022. 12. 09 (금) 오후 7:30PM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인제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석사),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현대음악양상블 단원, 천마피아노연구회 회원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강대현 독주회.

강대현은 그동안 11차례 독주회를 비롯해 부산현대음악양상블 연주회, 제21회 영남국제현대음악제, 인제피아노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 제12회 김해국제음악제, 부산국제현대음악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특히 정신재활 시설인 송국클럽하우스 음악고문으로 있으며 연주와 강의를 맡는 등 정신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로버트, 클라라 슈만 부부의 작품을 들려준다.

영도문화예술회관 송년 기념공연 2022 뮤지컬 갈라 송년콘서트 in 영도

일 시 | 12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4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며 영도문화예술회관이 마련하는 송년 기념공연.

TV와 무대를 넘나들며 안정된 연기력과 가창력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킨 민우혁, 파워풀한 가창력과 섬세하고 탄탄한 연기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소녀, 대한민국 뮤지컬의 산 역사이자 탄탄한 실력으로 극에 무게감을 더하는 이준명 등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 3인과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 송년콘서트로, 대한민국 뮤지컬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명곡들과 함께 무대 안팎의 이야기를 배우들을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다.

제14회 굿모닝 콘서트 응답하라! 우리들의 1990

일 시 |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블랙업커피 포함,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



공연의 여운과 커피의 향기로 두배의 기쁨을 누리는 울속도 음악산책 '굿모닝콘서트' 12월 무대.

특히 이번 무대는 1990년대의 추억을 클래식 음악과 대중적인 음악으로 소화, 그 시대의 추억과 에피소드에 걸맞는 다양한 곡들을 호연 깐뎀데의 연주로 들려준다.

- 소프라노/박소영, 이수진, 김나정
- 테너/양승엽, 김정권, 이태홍
- 바리톤/채범석, 최대우, 유용준
- 피아노/안준희, 조아라

부산콘서트콰이어 명품합창 시리즈 III 멘델스존 오라토리오 사도바울

일 시 |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만 5세 이상 관람, 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상임지휘자 전상철을 중심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콘서트콰이어의 명품합창 시리즈 세 번째 무대.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시작한 후 현재 성악 전공 단원들로 구성된 전문 합창단체로 발돋움한 부산콘서트콰이어는 이번 무대에서 부산에서 활동 중인 정상급 성악가들과 함께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바울'로 합창의 정수를 선사한다.

- 지휘/전상철 • 오르간/이혜영
- 연주/영아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소프라노/김성아 • 메조소프라노 손미숙
- 테너/김성
- 바리톤/최성규, 안재형, 이현성

부산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2022 울속도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



울속도문화회관 상주단체인 부산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2022 송년음악회'.

지난 2007년 창단된 부산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열정과 도전의식을 지닌 지휘자를 중심으로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연주자들로 구성, 참신하고 폭넓은 레퍼토리로 청중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동인대학교 손명균 교수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소프라노 오예은, 테너 김지호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주자들이 협연을 맡아 송년무대에 어울리는 다양한 곡으로 한해를 차분하게 마무리한다.

2022 조수미 콘서트 In Love

일 시 | 12월 11일 일요일 오후 5:00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4만3천원,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문 의 | 공연마루 1588-0766



전 세계 무대에서 끊임 없는 러브콜을 받으며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소프라노 조수미 전국 투어무대.

이번 무대는 오는 12월 선보이는 아름다운 한국 노래 앨범 '사랑할 때(In Love)' 발매에 맞춰 열리는 무대로, 앨범에 수록된 곡과 주옥같은 예술 가곡을 포함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시적인 아름다움과 현대 팝이 가지는 음악적 정서를 결합한 새로운 우리 노래를 조수미의 목소리로 만날 수 있다.

- 지휘/최영선
- 연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 테너/장주훈 • 해금/나리

2022 울속도 해피콘서트

일 시 | 12월 13일-16일 화-금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천원(예매시 20%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



행복한 즐거움과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2022년 울속도 해피콘서트.

에델현악사중주단, 부산 예술가곡연구회, 재즈밴드 레인메이커, 오네스토 뮤직앙상블 등 4개팀이 친근한 곡들과 편한 해설로 송년을 아쉬워하는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준다.

- 13일(화) 에델현악사중주단클래식 '악기로 온 가족이 함께 듣는 K-Pop'
- 14일(수) 부산예술가곡연구회 '세계의 명품가곡 컬렉션'
- 15일(목) 재즈밴드 레인메이커 'Jazz in this Season'
- 16일(금) 오네스토뮤직앙상블 '위로와 희망의 노래'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오상설공연 onStage TDC 앙상블 움직이는 글 실내악으로 듣는 문학 작품

일 시 | 12월 14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독일, 러시아 유학파 출신의 전문연주자로 구성된 TDC 앙상블의 무대. 올해로 창단 12주년을 맞은 TDC 앙상블은 그동안 관객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 나눔 콘서트', '기금마련 자선음악회' 등을 통해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음악과 문학이 함께 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북콘 가이드 이선형의 해설로 소설, 희곡, 시 등 '음악이 된 글'의 이야기를 실내악 연주로 흥미롭게 풀어간다.

- 소프라노/한인숙 • 바리톤/박찬

존노 & 고영열 콘서트 CANTAR

일 시 |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JTBC 팬텀싱어3의 주역인 테너 존노와 소리꾼 고영열의 무대로 꾸며지는 금정문화회관 송년콘서트. 감미롭고 청아한 목소리의 주인공 존노는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소화하며 세계적인 오페라전용 잡지에서 '감미로운 테너', '천부적인 테너'로 극찬을 받았다. 팬텀싱어3의 또 한명의 히어로인 고영열은 '판소리계의 라이징스타'라 불리며 퓨전 국악, 크로스 오버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KBS 불후의 명곡, 열린음악회, MBC 복면가왕 등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국악이 매력적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친숙한 음악이라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을속도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공연 오케스트라와 K-pop 시리즈 I Trot

일 시 |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20일 화요일 오후 7:30, 23일 금요일 오후 7:30
을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예매시 20%할인)
문의 | 을속도문화회관 220-5811



서부산권 문화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해온 을속도문화회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오케스트라와 K-pop 시리즈'. 더 많은 관객들과 다양한 연령대를 문화로 소통하고자 문턱을 낮추어 대중성과 예술성을 결합한 공연을 선보이고자 마련한 그 첫 번째 무대로, 'Trot'라는 주제로 트로트 '땡땡'로 일약 스타로 부상한 강진(17일), 트로트 메들리의 4대 천왕 진성(20일), 폭넓은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는 흥진영(23일)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다.

- 지휘/홍희철 • 사회/임성환

선샤인 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선샤인 오케스트라 010-5660-3919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창단한 선샤인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 선샤인 오케스트라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음악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행복과 감정을 소통하는 단체로, 지난 2015년 창단된 후 매주 토요일 저녁에 모여 함께 연습하고 매년 두차례 정기연주회를 가져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2022년 송년의 아쉬움을 담아 송년과 어울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 지휘/원준연
- 해설/김성희(피아니스트)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바로크 크리스마스

일 시 |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커피포함)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다채로운 장르와 주제로 관객과 만나온 금정문화회관 상설무대 '11시 브런치 콘서트'. 2022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바로크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코렐리의 '크리스마스 협주곡'을 시작으로 비발디, 퍼셀, 바흐 등이 남긴 바로크 명곡을 통해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번 무대는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이 이끄는 BCMS(부산클래시컬뮤직소사이어티) 앙상블이 연주하고 앙상블 크로노토프의 예술감독이자 클래식 전문 해설자로도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김정화가 해설을 맡아 송년의 아쉬움을 관객들과 나눈다.

제487회 가람 초청음악회 피아니스트 윤예지&박지은 듀오 리사이틀 춤곡의 밤

일 시 | 12월 20일 화요일 오후 7:00
가람아트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가람아트홀 621-6669



부산대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윤예지, 박지은이 함께하는 제487회 가람 초청음악회. 윤예지는 독일 바이마르 국립음악대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부산대학교-전남대학교 교류 연주회 및 신록 음악회, 독일 Klangrausch Weimar Trio Aram 앙상블, 부다페스트 인터내셔널 뮤직캠프 수료 및 Chamber Orchestra와의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박지은은 독일 뮌헨 국립음악대학 석사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오스트리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독일 Live Music Now 재단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가람 영아티스트 음악회 박성호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7:00 가람아트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가람아트홀 621-6669



1991년 문을 연 후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여온 부산의 아름다운 공연장 가람아트홀이 마련하는 가람 영아티스트 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2018 KPA 음악 콩쿠르 1등, 2019 경향 음악 콩쿠르 대상, 2020 부산국제음악콩쿠르 대상, 2020 글로빌 장학콩쿠르 2등, 2021 음악교육신문사 콩쿠르 2등, 2022 ART POP 음악 콩쿠르 금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차세대 피아니스트 박성호의 무대로 꾸며진다. 박성호는 현재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2학년에 재학중이다.

프로그램

하이든/소나타 제47번 Hob.XVI 32
바흐/프랑스 조곡 제2번 BWV 813
쇼팽/폴로나이즈 작품 26 제1번 올림파단조 등

2022 을숙도 청년예술인을 위한 콘서트 시리즈 V

앙상블 클라운 숨표

일 시 |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천원(예매시 20%할인)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을숙도문화회관이 부산 지역 청년예술가들을 위해 마련한 청년예술인을 위한 콘서트 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독특한 문화예술 공연기획으로 주목받고 있는 앙상블 클라운의 무대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2023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피아니스트 박다운, 클라리네티스트 이환석으로 구성된 클라리넷, 피아노 앙상블팀인 클라운은 지난 2019년 창단 후 시민뜨락축제, 부산음악협회 초청연주를 비롯해 수십 회의 하우스 콘서트 및 레저콘서트로 시민들과 만나왔다.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제23회 정기연주회 미리메리크리스마스

일 시 |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무료(사전예매 필수)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 상주 단체인 미래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송년무대.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젊고 유능한 연주자들과 부산, 창원, 울산, 포항시립 교향악단 단원 등 전문연

주자들로 결성된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캐럴부터 가요, 팝송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곡들로 관객들과 만난다.

- 지휘/박성은
- 소프라노/박은주
- 테너/조유환
- 합창/영도구립소년소녀합창단

2022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피아니스트 서형민&앙상블 노이에 봄여름가을겨울그리고봄

일 시 | 12월 28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2021년 독일 본 베토벤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만장일치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서형민이 앙상블 노이에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련하는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12월 무대.

화려한 입상경력과 더불어 폭넓은 레퍼토리와 테크닉을 자랑하는 서형민은 2001년 11세의 나이에 '뉴욕 필하모닉 영아티스트 오디션'에서 우승,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후 2016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및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우승, 2017년 영국 헤이스팅스 국제피아노 협주곡 콩쿠르 2위 등 수많은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제488회 가람 초청음악회 아인클랑 피아노 앙상블 창단연주회 건반위에 펼쳐지는 운명&신세계교향곡

일 시 | 12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가람아트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아인클랑 피아노 앙상블 010-7284-1307



부산대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진희, 심하정, 김영실, 강우용으로 구성된 아인클랑 피아노 앙상블 창단연주회.

김진희는 현재 경남대 외래교수, 부산현대음악앙상블 단원으로, 심하정은 현재 경남대, 경성대, 동서대 일반대학원, 인제대 외래교수로 있으며 김영실은 부산대, 경남대, 부산예중고에, 강우용은 부산대, 경남대에 출강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를 4 Hands로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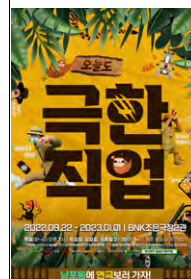
프로그램

주페/시인과 농부' 서곡
베토벤/교향곡 제5번 작품 6
• 게스트/이소진(피아노)

연극

연극 오늘도 극한직업

일 시 | 9월 22일(목)-2023년 1월 1일(일) 평일 (12/24일 오후 4:00, 7:00, 12/25일 오후 2:00, 4:00, 6:00, 8:00, 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평일 1만5천원, 주말·공휴일 1만8천원)
문의 | (주)조은아트플러스 1588-2757



사파리와 롤러코스터가 결합된 신개념 놀이기구라는 명칭이 무색하리만큼 파리만 날리는 사파리 익스프레스. 어느 날 멸종위기의 나무늘보 수컷이 코스타리카에서 발견되면서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사파리의 암컷이 세

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사파리익스프레스에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에 승진을 꿈꾸는 구해호와 포상금으로 영화감독 꿈을 노리는 정대성, 동물들의 대모를 꿈꾸는 손희영, 그리고 갓 입사한 막내 온라인까지 각기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무늘보의 짝짓기 의지를 불태우는 데... 과연 이들은 짝짓기를 무사히 성공시키고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극단 액터스 제36회 정기공연 너무 놀라지 마라

일 시 | 11월 23일(수)-12월 4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4:00(월요일 공연 없음) **하늘바람소극장**
문 의 | 극단 액터스 504-2544, 010-3577-3092



밝은 웃음과 통렬한 풍자, 넘치는 해학을 통해 연극 예술의 진수를 맛보게 할 극단 액터스 제36회 정기공연 '너무 놀라지 마라'. 극작가 겸 연출가 박근형의 희곡으로, 지난 2009년 초연된 후 그 해 백상예술대상 희곡상, 동아연극상 작품상·희곡상 등을 수상한 '너무 놀라지 마라'는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의 해체를 무덤덤하면서도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려냄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관계와 소통 부재, 고독에 대해 이야기한다.

- 작/박근형
- 연출/손병태
- 출연/호민, 송준승, 김상호, 이경진, 배문수

뮤지컬 삼총사

일 시 | 11월 27일(일)-12월 3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2:00, 6:30(월요일 공연 없음)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VIP석 15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문 의 | ㈜글로벌컨텐츠 1577-3363



2018년 10주년 공연 후 4년 만에 돌아온 K-뮤지컬 삼총사. 프랑스의 대문호 알렉상드르 뒤마의 대표작 '삼총사'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뮤지컬로, 17세기 프랑스 왕실 총사가 되기를 꿈꾸는 청년 달타냥과 전설적인 총사 아토스, 아라미스, 포르토스가 루이 13세를 둘러싼 음모를 밝혀내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특히 17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화려한 무대와 다이내믹한 검술 장면, 그리고 브라이언 아담스의 'All for Love'를 테마로 한 감미로우면서도 웅장한 음악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국내 뮤지컬 시장의 스테디셀러는 물론 대표적인 한류 뮤지컬로 자리 잡았다.

연극 오랜 기억

일 시 | 12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10일 토요일 오후 5: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전석 3만원(만 15세이상 관람)
문 의 | 빅피쳐스테이지 010-4820-1736



부산문화재단이 주최한 2021년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사업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연극 '오랜 기억'. 정신과 전문의 희주는 어린시절 연쇄살인범으로부터 아버지를 잃는다. 범인은 잡혔지만 경찰서에서 마주친 그날의 기억으로 희주는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낸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한 신부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재회하지만... 연극 '오랜 기억'은 실제 범죄자를 모티브로,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면밀한 탐구를 통해 극을 재구성했으며, 스릴러라는 장르를 통해 관객의 오감을 자극한다.

- 작, 연출/김정환
- 각색/이태경
- 출연/박호천, 최현정, 박규한, 박선, 변은지, 이태경, 이충환, 이설

부두연극단 그게 아닌데

일 시 | 12월 20일-23일 화-금요일 오후 7:30, 24일 토요일 오후 4:00 **액터스소극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학생 2만원 (사전예매시 1만원 할인)
문 의 | 액터스소극장 010-7450-3582, 010-5580-436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현대인의 모습을 위트있는 풍자로 풀어낸 연극 '그게 아닌데'. 제19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연출상, 연기상, 제5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연출상, 연기상, 2012년 올해의 연극베스트 3 등 연극상을 휩쓴 화제작인 '그게 아닌데'는 지난 2005년 실제 코끼리 동물원 탈출사건을 모티브로, 한 사건을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소통하지 않는 현대를 블랙코메디로 풀어낸 작품이다.

- 작/이미경
- 연출/이성규
- 기획/강경희
- 출연/권남희, 이동희, 박준서, 한승헌, 정재훈 외

뮤지컬 서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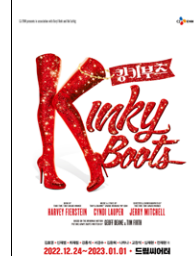
일 시 |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24일 토요일 오후 3:00, 7:30, 25일 일요일 오후 2:00, 6:3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OP석,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문 의 | 예명기획 1644-3901



한국 창작 뮤지컬의 한 획을 그은 뮤지컬 '서편제'의 굿바이 시즌 무대. '서편제'는 2010년 초연 이후 언론과 평단의 찬사 속에 긴 시간 동안 관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로, 특히 팝, 록, 발라드부터 판소리까지 다양한 음악을 드라마틱하게 엮어 낸 아름다운 선율과 소리꾼의 유량과 우리네 인생관을 표현하는 회전 무대, 400여 장의 한국화를 빛으로 다시 그려낸 한 폭의 수묵화와 같은 영상과 조명, 한국적 정서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군무와 배우들의 열연은 원작이 가진 묵직한 감동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며 한 편의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감동으로 호평받았다.

뮤지컬 킵부츠

일 시 | 12월 24일(토)-2023년 1월 1일(일) 금요일 오후 8:00, 주말 오후 2:00, 7:00(12/26 일-12/28일 공연없음, 1/1일 오후 2:00)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문 의 | 썬월드쇼마켓 1566-5490



지난 2013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후 토니어워즈 6관왕, 로렌스 올리비에 어워즈 3관왕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뮤지컬 시상식을 휩쓸은 뮤지컬 '킵부츠'. 1979년 영국 노샘프턴의 신발 공장에서 있었던 실화를 토대로 탄생한 '킵부츠'는 경영 악화로 폐업 위기의 구두공장을 물려받은 찰리가 편견과 억압에 당당히 맞서는 여장남자 롤라를 만나 특별한 신발 '킵부츠'를 만들면서 회사를 살리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은 작품이다.

무용

스트리트 맨 파이터 ON THE STAGE

일 시 |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2:00, 7:00
 백스코 제1전시장
 입장료 | 전석 12만1천원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몸으로 증명한 남자들의 춤 싸움! 스트리트 맨 파이터 'ON THE STAGE'. Mnet '스트리트 맨 파이터'의 뜨거웠던 5개월의 대장정이 끝나고 짜릿한 전율을 눈 앞에서 볼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방송에서 치열한 경쟁을 선보인 저스트 절크, 워덤보이즈, 엠비서스, बैं크 투 브라더스, 원밀리언, 어때, YGX, 프라임킹즈까지 총 8팀이 출연한다. 스트리트 맨 파이터는 첫 방송 당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의 시청률을 제치며 심상치 않은 시작을 선보였으며, 이후 유튜브에 공개된 각 크루들의 미션 영상의 조회수는 매년 높은 조회수를 갱신하며, 국내외로 뜨거운 인기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경쟁이 아닌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무대이다.

영화

영상으로 만나는 뮤지컬 명성황후

일 시 | 12월 7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정영홀
 입장료 | 무료(사전예매 필수, 전체관람가)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생동감 넘치는 고화질 영상과 10대 이상의 카메라 앵글로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화면, 현장감 넘치는 입체 사라운드 음향으로 예술의전당의 우수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SAC on Screen'. 이번 상영회에서는 명성황후 시해 100주기를 맞아 제작한 국내 창작뮤지컬 '명성황후'를 선보인다. 뮤지컬 '명성황후'는 고종의 왕후로서 비극적이었던 삶뿐만 아니라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과 격변의 시대에 주변 열강들에 맞서 나라를 지켜야만 했던 여성 정치가로서의 고뇌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번 작품은 지난해 25주년 기념으로 개최되었던 공연으로, 명성황후와 고종 역으로 김소현, 손준호 부부가 맡았으며 보다 풍성해진 무대로 당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콘서트

2022년 임재범 전국투어 콘서트

일 시 |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6:00
 백스코 제1전시장
 입장료 | VIP석 15만4천원, R석 14만3천원
 S석 13만2천원, A석 11만원
 문 의 | ㈜에스제이엔티 1599-2005

2022 적재 전국투어 The LIGHTS

일 시 |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6:00 **드림씨어터**
 입장료 | R석 12만1천원, S석 11만원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2022 멜로망스 전국투어 콘서트 Festival

일 시 |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18일 일요일 오후 4:00 **백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VIP석 13만2천원, R석 12만1천원, S석 11만원
 문 의 | ㈜밝은누리 1566-9621

라포엠 단독 콘서트

LA POEM SYMPHONY

일 시 |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6:00
 18일 일요일 오후 5:00 **드림씨어터**
 입장료 |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9천원
 문 의 | ㈜밝은누리 1566-9621



2020년 JTBC 예능 '팬텀싱어 3'를 통해 결성된 크로스오버 남성4중창 그룹 라포엠 부산콘서트. 라포엠은 테너 유채훈, 카운터테너 최성훈, 바리톤 정민성, 테너 박기훈 등 '팬텀싱어' 시리즈 역대 최초로 성악가 4인으로만 이루어진, 일명 성악 아벤져스 팀으로, 매 공연마다 독보적인 라이브 실력과 하모니로 관객들의 귀 호강을 책임져왔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라포엠 심포니'라는 부제에 걸맞게 관현악, 팝 밴드, 합창단 등이 어우러진, 한 편의 교향곡 같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라이브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포르테 디 콰트로 크리스마스 콘서트

O Holy Night'

일 시 |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6:00
 백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고품격 하모니로 크로스오버 음악의 대명사로 불리는 포르테 디 콰트로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팬텀싱어' 첫 번째 우승 팀으로, 고훈정, 김현수, 손태진, 이버리로 구성된 포르테 디 콰트로의 '네 명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휘몰아치는 감동'과 '크로스오버의 품격을 보여주는 세련된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데뷔 이래 처음 마련하는 이번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는 피아니스트 오은철을 비롯해 기타 박윤우, 베이스 황호규, 드럼 황성환, 건반 이진주 등 대한민국의 최고 연주자들과 함께 포르테 디 콰트로의 시그니처 곡들은 물론, 캐럴과 겨울을 이야기하는 곡까지 풍부한 색채의 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Heize 1st Concert Heize City in Busan

일 시 |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3만2천원, R석 12만1천원
 S석 11만원
 문 의 | ㈜공연마루 1588-0766

노을 20주년 전국투어 콘서트 스물

일 시 |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7:00, 25일 일요일 오후 5:00 **백스코 제1전시장**
 입장료 | VIP석 16만5천원, R석 15만4천원
 S석 14만3천원, A석 13만2천원, B석 11만원
 문 의 | ㈜에스제이엔티 1599-2005

2022 에일리 전국투어 콘서트 한 걸음 더

일 시 |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6:00
 백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VIP석 13만2천원, R석 12만1천원
 S석 11만원(15세이상 관람)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행사

12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2:00, 토요일 오후 2:0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722-9597



매주 화요일에는 베를린 필 디지털 콘서트홀을 연결, 최근의 정기연주회 실황을, 금요일에는 잘츠부르크 실황 및 인기오페라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으며 토요일에는 평일 감상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금요일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오페라/바그너 '탄호이저'(2일), 베토벤 '피델리오'(9일), 베버 '마탄의 사수'(16일), 차이콥스키 '예브게니 오네긴'(23일), 푸치니 '라보엠'(30일)
 콘서트/안드리스 넬슨스와 조성진(6일), 키릴 페트렌코의 모차르트와 차이콥스키(13일), 키릴 페트렌코와 유자왕(20일), 키릴 페트렌코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27일)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아카데미 클래식음악 영상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1: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1개월 5만원
 문 의 | 영광도서 070-4020-2540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 이자 현재 클래식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아카데미'.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과 함께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음악의 해외 연주회 실황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12월에는 특집 '명작곡가의 탄생지 기행과 음악'이라는 주제로 엘가와 쇼팽, 드뷔시 등 작곡가의 탄생지를 찾아 그의 음악세계를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

조국과 아내를 사랑한 음악가, 영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생애와 음악, 탄생지 영국의 우스터 기행
 쇼팽의 고향, 바르샤바와 쇼팽의 피아노 음악 빛과 사랑의 도시, 파리-클로드 드뷔시의 음악과 생애
 성탄절 특집 '드레아 보첼리의 크리스마스캐럴 콘서트 실황'
 송년특집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코랄판타지'

제181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겨울, 편지, 송년 주제 詩낭송회

일 시 |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회 회장 010-6367-0149

- 출연/정길언 시인 외 초대시인

12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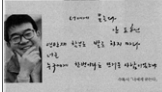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15일 목요일 오전 11: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5일(월) 오후 7:00 눈이 본 대상을 의식은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지적의 이데올로기와 헤겔의 의식'

- 강사/박수정(문학박사, 영어 K 글쓰기 디렉터)
- 12일(월) 오후 7:00 책짜리로 팔방을 가리키며
- 강사/심상교(연극평론가, 부산교대 교수)



15(목) 오전 11:00 시인과 함께하는 낭송과 낭독 그리고 詩수다. 안도현 시집 '외롭고 높고 쓸쓸한(문학동네)'



19일(월) 오후 7:00 영화의 바다에서 만난 문학 '과거로 돌아간 SF: Never Let Me Go'
 • 강사/홍옥숙 (한국해양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26일(월) 오후 7:00 민주주의 5부작: 시민의 권력의지
 • 강사/최자영(한국외대 그리스·불가리아과 겸임교수)

전시

2022 제3회 신수유물 소개전 개항장의 수출화가, 기산 김준근

일 시 | 10월 18일(화)-2023년 2월 12일(일)
부산박물관 부산관 2층 미술실
 문 의 | 부산박물관 610-7111



조선의 3대 풍속화가로 평가받고 있는 기산(箕山) 김준근의 새로운 작품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부산박물관 제3회 신수유물 소개전.

이건희 컬렉션 한국 근현대 미술 특별전 수집: 위대한 여정

일 시 | 11월 11일(금)-2023년 1월 29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세기의 기증이라 불리며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이건희 컬렉션' 한국 근현대 미술 특별전.

김등용 초대전 Pine Blues

일 시 | 12월 1일(목)-12월 23일(금)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타워아트갤러리 기획 아름다운 만남전

일 시 | 12월 6일(화)-12월 17일(토)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타워아트갤러리 기획 서양화 소품전

일 시 | 12월 19일(월)-12월 31일(토)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부산시립예술단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 성료

2022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60주년,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50주년을 맞아 부산시립 예술단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11월 7일 부산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성대학교 김원명 교수가 진행을 맡고 김강규(전 부산시립합창단 지휘자), 김동욱(부산대 교수, 전 부산시향 악장), 윤상운(동의대 교수, 전 부산시향 부지휘자), 이상헌(춤 비평가), 이소영(부산시오페라단 연합회장)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석, 예술단의 위상 강화를 위한 예산증액과 인력충원, 지역예술인과의 협업 강화, 미래 관객개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토론자의 전문적인 경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으며,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재)부산문화회관 이정필 대표이사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해나가겠다'며 밝혔다.

한편, 부산시립예술단은 지난 1962년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시작으로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7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올해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에 이어 2023년에는 부산시립무용단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각각 창단 50주년을 앞두고 있다.

원로단원들과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성료

2022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60주년을 맞아 교향악단을 거쳐간 원로단원들과 마련한 특별한 무대, 'BPO Odyssey:경험이 가득한 긴 여정'이 극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1월 1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최수열 예술감독과 박화남, 김영근, 김지세, 조양희 등 교향악단을 거쳐간 원로단원이 참석, 교향악단 60년사를 되돌아보는 특별한 무대를 가졌다. 특히 원로단원들이 직접 들려주는 추억이 깃든 작품들의 에피소드를 통해 지금의 교향악단이 있기까지의 역사와 추억, 그리고 자긍심을 관객들과 함께 돌아보며 교향악단의 앞으로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기원했다.



<예술의초대> 창간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12월 7일(수)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및 로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이 발행하는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가 올해로 창간 30주년을 맞았다.

1992년 1월호를 시작으로 통권 372호(2022년 12월호 기준)를 발행한 <예술의초대>는 지난 30년 동안 공연, 전시, 문화행사 등 부산지역의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의 다양성과 지역 문화를 짚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획 기사를 게재하면서 부산의 문화와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해왔다. 창간 당시 4x6배판(188*254mm) 32페이지, 3천부를 발행했던 <예술의초대>는 현재 국배판 변형(210*280mm) 80페이지, 4천부가 발행되고 있다. 창간 당시 제호였던 <예술에의초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지난 2014년 3월호부터는 지금의 그래픽체로 서체가 변경됐으며, 번역투였던 제호는 2019년 편집위원회를 통해 지금의 <예술의초대>로 변경, 통권 337호(2020년 1월호)부터 사용되고 있다. 현재 <예술의초대>는 매월 25일경 발행되고 있으며, 책자 발간 후에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E-BOOK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다.

창간 3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7일에는 정기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렉처콘서트 ‘베로나에서 비올레타를 만나다’가 챔버홀에서 열린다. 이번 렉처콘서트는 2023년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올해부터 <예술의초대>에 연재를 시작한 ‘세계오페라축제’의 필자인 아트컨시어지 이상훈 대표를 초청, 전 세계 유명 오페라극장과 오페라축제에 대해 알아보며, 소프라노 박현진, 테너 김준연, 바리톤 강경원이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이번 공연의 입장원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해 선착순 예매로 제공된다.

한편, 공연이 열리는 챔버홀 로비에서는 지난 30년간 부산의 생생한 문화현장과 당시의 문화 트렌드를 이끈 다양한 기획 기사를 통해 <예술의초대> 30년을 돌아보는 특별한 기획전이 펼쳐진다.

(재)부산문화회관 SNS 주부홍보단 모집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SNS 주부홍보단이 2023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번 SNS 주부홍보단은 한 가정의 교육, 문화와 소비의 주체가 되는 주부들의 SNS 채널 홍보를 통한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기관 및 개인 SNS 채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공연, 전시 소식을 빠르게 전하며 우리기관과 시민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SNS 주부홍보단은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하며, 주부홍보단으로 선발되면 정기회원 무료가입의 혜택이 주어진다.

B



한국 땅에서 예술하기: 임옥상 보는 법

박소양 지음 / 한길사 / 2만8000원

화가 임옥상의 작품이 보여준 상처 난 땅, 파헤쳐진 땅, 빨간 웅덩이가 고인 땅의 이미지는 강렬했다. 그는 '1세대 민중 미술가'로 불렸고, 민중미술은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규정되었다. 저자 박소양은 한국의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이유로 고착화되어 왔다고 분석 비판하며 새로운 '보기 방법'(Ways of Seeing)을 제안한다. 임옥상의 그림에는 '땅'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그에게 땅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두 발을 딛고 살아내는 삶의 터전이자 상호 관계성의 근간이다.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땅과 인간의 관계는 어느덧 일방적인 착취에 가까워졌다. 그런 면에서 최근 기후 변화의 위기를 포함해 지구 생태계는 인간과 땅의 관계를 다시 보게 한다. 임옥상은 착취의 기제인 '정장'이라는 면죄부 아래 사회가 외면하고 소외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땅의 원소적 모티브인 '흙'으로 말하고자 했다. 그동안 임옥상을 설명해 온 정치적 자유와 혁명이라는 방식은 시대가 취사선택한 키워드에 불과했다. 우리가 '보는 법'을 달리할 때 세상의 장막은 걷힌다. 저자는 임옥상이 평생에 걸쳐 모든 것의 근간인 '땅'을 그렸고, 작품에는 생태적 세계관이 담겼다고 말한다.

O



그림과 글이 만나는 예술 수업

임지영 지음 / 학교도서관저널 / 1만8000원

어린이들의 그림과 글은 감동과 재미를 함께 준다. 꾸밈없는 글은 어른들은 부끄럽게 할만큼 진실하고, 거침없는 그림은 감탄스럽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림 잘 그리는 아이' '글 잘 쓰는 아이'가 되거나, '둘 다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린다. 어른들의 잣대가 개입했기 때문일 것이다. 학원에서 따로 사교육을 시키고 이런 저런 대회로 승수를 나는 사이 아이들은 글과 그림에 흥미를 잃기도 한다. 아이에게는 타고난 재능을 뺏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술 작품에 감동하는 순간의 뇌를 관찰하는 실험을 소개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다. 사람은 내면을 바라볼 때와 세상을 바라볼 때 작동하는 뇌가 다른데, 작품을 보고 감동할 때 이 둘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렇듯 작품 감상은 인간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또 하나의 창의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그 감상은 글쓰기를 통해 더 단단해지고 풍성해진다. 예술 교육자 임지영 씨는 그림과 글이 만나는 예술수업을 중요성을 말한다. 이 수업은 시각적 문해력과 창의력을 동시에 키우는 예술 감성교육이다. 그림으로 감성과 상상력을, 글쓰기로 생각과 표현력을 키우는 교육을 다양한 사례로 제시하는 책이다.

K



책방을 떠날 거야

김정애 글, 정은주 그림 / 헌북스 / 1만3000원

온라인을 통해 책을 주문하고 현관에서 받는 일은 편리하다. 하지만 동네에서, 도심의 거리에서 서점이 다 사라져버리는 건 정말 괜찮을까. 서점에 막 도착한 따끈 따끈한 신간도서를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천천히 훑어보는 소소한 행복과 여유도 사라지고 있다. '책과 서점'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동화가 나왔다. 부산의 동네 책방 '책과 아이들'에서 오래 일했던 김정애 작가가 책들이 벌이는 소동을 동화로 들려준다. "우리는 그 어떤 존재들보다 현명했고, 사람들은 우리를 늘 귀하게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우리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존재는 '책'이다. 책들이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말을 하고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책방에 오는 사람들이 적어 주인아저씨도, 책들도 희망을 잃었다. 책장에 오랫동안 꽂혀 있던 책 '아빠는 피곤해'는 차라리 책을 그만두고 폐지가 되면 주인아저씨께 도움이 될 거라며 책방 밖으로 탈출하려 한다. 다른 책들도 위기를 느끼지만 다함께 머리를 모아 책방을 살리기로 한다. 그 길이 책으로서의 의무이며 자부심이다. 동화 속 작은 책방의 일이 실제였으면 좋겠다.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3 시즌 프로그램(1월~6월)

예매오픈

2022년 11월 30일(수) 오후 2시

*정기회원 선오픈 11월 29일(화) 오후 2시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량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공연 1일 전 취소 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 마감 17시 이후 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 문의 : 051)607-6000(ARS 1번)

2023. 1-6월

January - June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새해의 시작을 여는 실내악의 향연
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부산으로부터의 초대>

문화 | 중극장 챔버홀
2023. 1. 3.(화)-1. 17.(화)
예술감독 | 김동욱



All that Chamber music :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리더들의 실내악 향연

문화 | 중극장 2023. 1. 3.(화) 7:30pm
R 30,000원 S 20,000원
• 바이올린 | 데니스 김, 미셸 김, 김동욱, 임홍균
• 비올라 | 최영식, 배은진
• 첼로 | 요나 김, 벤 휴즈
• 피아노 | 션 케너드 • 클라리넷 | 백동훈



Trio Barclay :
The Essentials of Piano Trio & Quintet :
바클레이 트리오가 들려주는 피아노 트리오와
퀸텟의 진수

문화 | 챔버홀 2023. 1. 4.(수) 7:30pm
전석 20,000원
• 바이올린 | 데니스 김, 미셸 김 • 비올라 | 최영식
• 첼로 | 요나 김 • 피아노 | 션 케너드



학교 실내악 축제

문화 | 챔버홀 2023. 1. 7.(토) 5:00pm
전석 10,000원
※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부산예술중학교



3인3색(三人三色) in Busan : 실내악 열전

문화 | 챔버홀 2023. 1. 10.(화) 7:30pm
전석 20,000원
※ 주빌레 클라리넷 앙상블, KNN 앙상블,
앙상블 아토



Rosenstein String Quartet :
로젠슈타인 현악4중주

문화 | 챔버홀 2023. 1. 12.(목) 7:30pm
전석 30,000원
• 바이올린 | 알렉산더 크낙, 이수은
• 비올라 | 디릭 헤게만, 황영진
• 첼로 | 마누엘 본 데어 나머, 홍승아



The Variety of Chamber music :
기(起)-승(承)-전(轉)-실내악(室內樂)

문화 | 챔버홀 2023. 1. 14.(토) 5:00pm
전석 20,000원
• 바이올린 | 김현오 • 첼로 | 김지영
• 피아노 | 조민현 • 소프라노 | 양송미
• 피아노 | 김성주 • 비올라 | 김가영 • 동백유랑단



폐막 연주회 :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with 심희정

문화 | 챔버홀 2023. 1. 17.(화) 7:30pm
전석 20,000원
•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 피아노 | 심희정



2023 (재)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3. 1. 29.(일) 4:00pm
R 70,000원 S 50,000원 A석 30,000원
• 지휘 | 마놀로 까닌 • 출연 | 빈 소년 합창단



50여 년간 인간 사랑의 편지
연극 <러브레터>

문화 | 중극장 2023. 1. 28.(토)-1. 29.(일)
2:00pm, 5:00pm
R 50,000 S 30,000원 A 20,000원
• 작가 | A.R. 거니(A.R. Gurney)
• 출연 | 박정자 오영수 배종욱 장현성 • 연출 | 오경택
•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뮤지컬의 본 고장, 당신이 꿈꾸는 바로 그 곳!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문화 | 대극장 2023. 2. 3.(금)-2. 5.(일)
금요일 7:30pm, 토요일 2:00pm, 7:00pm,
일요일 2:00pm
R 140,000원 OP 130,000원 S 100,000원 A 70,000원
• 출연 | 송일국, 이종혁, 정영주, 배해선, 신영숙, 전수경, 홍지민, 오소연,
유낙원, 김동호, 이주순 외
• 관람연령 | 초등학교생 이상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
브루스 리우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3. 3. 10.(금) 7:30pm
R 60,000원 S 40,000원



색다른 묘미의 공주 이야기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문화 | 사랑채 2023. 3. 16.(목)-4. 27.(목)
평일 11:00am / 주말 11:00am, 2:00pm
전석 20,000원
• 제작 |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 출연 | 황자미, 우지현, 박규한, 김현주, 김선정 외 다수
•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양인모&김다솔 듀오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3. 3. 29.(수) 7:30pm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유럽 최고 수준의 스페니시 챔버 앙상블
콘체르토 말라가
문화 | 대극장 2023. 4. 6.(목)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티켓오픈 추후공지



임지영&문태국 슈퍼 듀오와 함께하는
 브람스 음악세계의 진수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4. 22.(토) 5:00pm
 V 150,000원 R 120,000원 S 70,000원 A 50,000원
 • 지휘 | 마르코 레토나
 • 연주 |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협연 | 임지영(바이올린), 문태국(첼로)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빈 Guitar 국제 콩쿠르 우승자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3. 4. 27.(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 출연 | 기타리스트 캐시 마르탱, 로안나 코조글로우, 장승호
 • 콘서트 가이드 | 국지연



별과 꿈, 동심의 만남! 우리가 꿈꿔온 설렘이 시작된다
 어린이 베스트 캐릭터 뮤지컬
<피터팬과 후크선장>
문화 | 사랑채 2023. 6. 9.(금)-7. 23.(일)
 평일 11:00am 주말 11:00am, 2:00pm
 (*월, 화 공연 없음)
 전석 20,000원
 • 제작 | 극단 오오씨어터
 • 출연 | 박규한, 김성열, 이충환, 정지수 외 다수
 • 관람연령 | 36개월 이상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자극과
 클래식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
음악동화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
문화 | 사랑채 2023. 8. 18.(금)-9. 24.(일)
 평일 11:00am 주말 11:00am, 2:00pm
 (*월, 화 공연 없음)
 전석 20,000원
 • 제작 | 극단 영
 • 출연 | 최진희, 원우연, 이승, 이한강, 이명진 외
 • 관람연령 | 36개월 이상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3. 10. 6.(금) 7:30pm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부산시민회관

인생 2막, 새로운 청춘, 다시 가슴이 뻐다!!
쓰리보이즈 리턴즈
시민 | 소극장 2023.2.10.(금) 7:30pm
 2.11.(토) 3:00pm
 전석 20,000원
 • 제작 | 공연집단The
 • 연출 | 김기영
 • 출연 | 강얼우, 정승천, 황해순
 • 관람연령 | 초등학교생 이상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낭만 발레의 걸작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시민 | 대극장 2023. 4. 7.(금) 7:30pm,
 4. 8.(토) 3:00pm
 V 90,000원 R 7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 대본 | 배르노이 드 생 조르주, 테오필 고티에, 장 코라이
 • 안무가 | 장 코라이, 질 페로 • 음악 | 아돌프 야당
 • 연출 | 올레그 비노그라도프, 유병현
 • 관람연령 | 초등학교생 이상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뽀뽀를 찾아라
시민 | 대극장 2023. 5. 20.(토) 3: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 출연 | 핑크퐁, 아기사어, 대니 구, 팬권코러스,
 바샤르 오케스트라
 • 관람연령 | 36개월 이상



한국인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피아노의 음유시인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시민 | 대극장 2023. 5. 26.(금) 7:30pm
 V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 관람연령 | 초등학교생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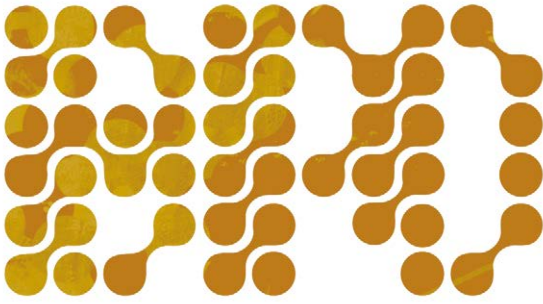


청년 버스커들의 대축제!
부산버스킹페스타
시민 | 소극장 2022. 6. 3.(토) 3:00pm
 전석 20,000원
 • 연주 | 버스킹 경연에서 선발된 10개의 밴드
 초청가수(미정)



부산에서 만나보는 세계 어린이 청소년극!
**세계 어린이·청소년 예술축제
 아시테지 인 부산**
시민 | 소극장 2023. 7월 중





2023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최수열
올해의 예술가 손민수

BPO SYMPHONIC SEASON 2023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Minsoo Sohn, Artist-in-Residence 2023



596 6 Last Works I Beethoven, Gulda and Dvořák

1월 19일 THU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첼로 심준호

Program

베토벤 /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굴다 / 첼로와 관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드보르자크 /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597 Wagner and Bruckner

2월 21일 TUE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홍석원

Program

바그너 / “트리스탄과 이졸데” 中 전주곡과 사랑의 죽음
브루크너 / 교향곡 제6번 (노바크 판본)



598 6 Last Works II An All-Brahms Program

3월 23일 THU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피아노 손민수 (2023 올해의 예술가)



Program

브람스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브람스 / 교향곡 제4번



599 Mendelssohn and Bartók

4월 21일 FRI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금노상
바이올린 나승준 (2023 정기연주회 오디션 합격자)

Program

멘델스존 / “핑갈의 동굴” 서곡
멘델스존 / 바이올린 협주곡
버르토크 /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600 6 Last Works III Mahler's 9th Symphony

6월 16일 FRI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Program

말러 / 교향곡 제9번

601 Shostakovich and Prokofiev

7월 21일 FRI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서진
바이올린 김재원

Program

쇼스타코비치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프로코피예프 / 교향곡 제7번



602 6 Last Works IV Four French Composers

(2023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9월 7일 THU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바이올린 올리비에 샤를리에

Program

메시앙 / 미소
쇼송 / 시
라벨 / 치간
비제 / “카르멘” 모음곡 中 발췌

603 An All-Tchaikovsky Program

9월 22일 FRI 19:30 시민회관 대극장
지휘 김덕기
피아노 세르게이 타라스프

Program

차이콥스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차이콥스키 / 발레 모음곡 中 발췌



604 6 Last Works V Haydn and Brahms

10월 27일 FRI 19:30 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최수열
피아노 손민수 (2023 올해의 예술가)



Program

하이든 / 교향곡 제104번
브람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605 Prokofiev and Rachmaninov

11월 17일 FRI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사오치아 루
바이올린 백주영

Program

프로코피예프 /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라흐마니노프 / 교향곡 제2번

606 6 Last Works VI Pärt and Strauss

12월 14일 THU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Program

파트 / 벤자민 브리튼을 기리는 칸투스
슈트라우스 / 영웅의 생애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강서룡 호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수민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중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051-607-604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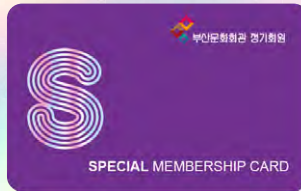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측 협의에 한함)



VIP

-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불가능)

부산문화회관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 선예매 서비스 제공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의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 원(50매)	300만 원(30매)	100만 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제시 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북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051-607-6041, www.bscc.or.kr)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2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2022

시네마 필름 콘서트

<러브레터&냉정과 열정 사이>

12월 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20매)

스탠딩에그&소란 콘서트

12월 17일(토)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R석 20매)

사라 장&비르투오지

12월 18일(일)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20매)

뮤지컬

<유진과 유진>

12월 30일(금) 오후 7:30, 31일(토) 오후 2:00, 7:00 **종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R석 1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200)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2023

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부산으로부터의 초대>

2023년 1월 3일(화)-1월 17일(화)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챔버홀(3일 R석 20매, 이외 회차별 20매)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1월 29일(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40매)

연극 <러브레터>

1월 28일(토)-1월 29일(일) 오후 2:00,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S석 30매)

쓰리보이즈 리턴즈

2월 10일(금) 오후 7:30, 2월 11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S석 2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브루스 리우 피아노 리사이틀

3월 1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양인모&김다솔 듀오 바이올린 리사이틀

3월 29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40매)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4월 7일(금) 오후 7:30, 4월 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S석 40매)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

4월 22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빈 기타 국제 콩쿠르 우승자 리사이틀

4월 27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 40매)

핑크퐁 클래식 나라

뚜띠를 찾아라

2023년 5월 20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S석 40매)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2023년 5월 26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S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2023년 10월 6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40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청년희망날개프로젝트 부산, 노래로 하나되다



소프라노 류가은



테너 김민성



소프라노 오예은



테너 강도호



소프라노 김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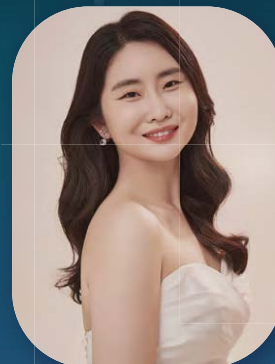
테너 안학범



메조소프라노 이유진



베이스 박순기



소프라노 이지현

2022년 12월 14일(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 R석 3만원, S석 2만원 지휘 | 김경희 출연 |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산성악가협회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예매 및 문의 | WWW.BSCC.OR.KR 051-607-6000(ARS1번)

26TH
ANNIVERSARY



M · U · S · I · C · A · L
★
42ND
STREET

뮤지컬 브로드웨이42번가

★★ 송일국 ★ 이종혁 ★ 정영주 ★ 배해선 ★ 신영숙 ★ 전수경 ★ 홍지민 ★ 오소연 ★ 유낙원 ★ 김동호 ★ 아주순 ★★

2023.2.3(금)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제작 CJ ENM 주최/주관 WSM 부산문화회관 시간 금 7시 30분 / 토 2시, 7시 / 일 2시 예매 인터파크, 예스24, 11번가티켓 문의 1566-5490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1인 2매 / 1566-5490 전화예매시 ★★

MUSIC BY HARRY WARREN. LYRICS BY AL BURN. BOOK BY MICHAEL STEWART & MARK BRAMBLE. BASED ON THE NOVEL BY BRADFORD BOYES. ORIGINAL DIRECTION AND DANCES BY BOWER HAMPTON. ORIGINALLY PRODUCED ON BROADWAY BY DAVID MERRICK. THE USE OF ALL RIGHTS BY ARRANGEMENT WITH WARNER BROS. THE WORLD OF MUSIC PUBLISHERS' RIGHTS. MUSICAL ADAPTATION, ARRANGEMENTS AND ADDITIONAL DIRECTION BY DONALD JOHNSON. 42ND STREET IS PRESENTED BY ARRANGEMENT WITH TMAC WITMARK MUSIC LIBRARY, INC. 155 LEXINGTON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U.S.A.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Busan Cultural Center

배시시(BSCC)TV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배시시(BSCC)TV'입니다.

'배시시' 이름처럼 많은 분들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짓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부산의 문화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검색

유튜브 검색창에 '배시시tv'를 검색해보세요.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씬머니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COUPON



5% Discount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4회 사진맛집 BSCC 이벤트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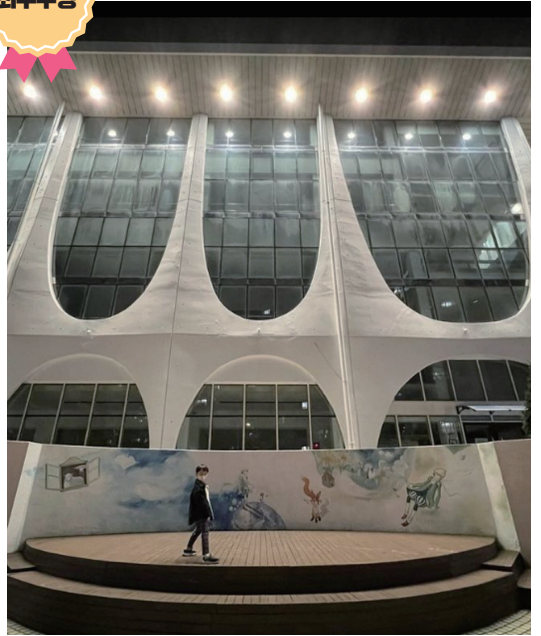
2022년 'BSCC 사진맛집' 이벤트로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의
찬란한 순간들을 담아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최우수상



@busan_with_kids

최우수상



@wanso_mom

우수상



@min_hi_woo

우수상



@crazycm1

우수상



@hyekyung9328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2. 12.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① 612-9566 ⑩ 621-5788
- ② 624-9776 ⑪ 070-755-2188
- ③ 626-7111 ⑫ 611-3973
- ④ 611-4241 ⑬ 908-1111
- ⑤ 626-4448 ⑭ 625-9402
- ⑥ 622-7412 ⑮ 626-2292
- ⑦ 611-3589 ⑯ 010-3996-6498
- ⑧ 628-8009 ⑰ 623-0772
- ⑨ 621-7040 ⑱ 628-3832

Music & Art / etc.

- Ⓐ 868-3311
- Ⓑ 868-3311
- Ⓒ 625-7275
- Ⓓ 628-2592
- Ⓔ 622-1456
- Ⓕ 621-6669
- Ⓖ 626-7900
- Ⓘ 080-337-3370
- Ⓙ 622-9722
- Ⓚ 625-8704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받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2022

12

DECEMBER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VIENNA

NEW YEARS CONCERT

BOYS CHOIR

빈 소년 합창단
신년 음악회



2023. 1. 29 SUN 4:0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극

러브레터

LOVE LETTERS

작 A.R. GUREY 연출 오경택

주최/제작 부산문화재단 (주)파크컴퍼니

예매처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051-607-6000(ARS 1번)

<LOVE LETTERS> is presented by arrangement with WME(William Morris Endeavor Entertainment, LLC)

50여년간 이어진 두 남녀의 러브레터

박정자 오영수 배종옥 장현성



2023. 1. 28 - 29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개막 연주회

All that Chamber Music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리더들의 실내악 향연

1. 3 (화) 19:30 중극장

바이올린 | Michelle Kim (이영림) Dennis Kim (데니스 김)
김동욱 임홍균
비올라 | 최영식
첼로 | Jonah Kim (오나 김) Ben Hughes (벤 휴즈)
피아노 | Sean Kennard (선 케너드)
백동훈



World EKPO 2030
BUSAN, KOREA

2023

BNK 부산은행 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부산으로부터의 초대

Invitation from Busan

2023 BUSAN CHAMBER FESTIVAL

2023. 1. 3 TUE - 1. 17 TUE

평일 | 19:30 / 주말 및 공휴일 | 17: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중극장

예술감독 김동욱 |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Rosenstein String Quartet

로젠슈타인 현악4중주

1. 12 (목) 19:30 챔버홀

바이올린 | Alexander Knaak (알렉산더 크나)

이수은

비올라 | Dirk Hegemann (디르크 헤게만)

황여진

첼로 | Manuel Von Der Nahmer

(만루엘 폰 데어 나머)

홍승아



Trio Barclay

The Essentials of Piano Trio & Quintet

비올라 트리오가 들려주는 피아노 트리오와 콰인텟의 진수

1. 4 (수) 19:30 챔버홀

바이올린 | Dennis Kim (데니스 김)
Michelle Kim (이영림)
비올라 | 최영식
첼로 | Jonah Kim (오나 김)
피아노 | Sean Kennard (선 케너드)



The Variety of Chamber music

기(起) - 승(承) - 전(轉) - 실내악(室內樂)

1. 14 (토) 17:00 챔버홀

바이올린 | 김현오

첼로 | 김지영

피아노 | 조민현

소프라노 | 양송미

피아노 | 김성주



동백유랑단

바이올린 | 가영 바이올린 | 주혜은 피리 | 진형준 피아노 | 이동욱 퍼커션 | 이경민

Busan's Culture & Future

학교 실내악 축제

1. 7 (토) 17:00 챔버홀



3인3색(三人三色) in Busan

실내악 연주회

1. 10 (화) 19:30 챔버홀

주빌레 클라리넷 앙상블

클라리넷 | 최우선 최연주 박관희 황수빈

베이스 클라리넷 | 김정민

KNN 앙상블

바이올린 | 김나형 최종완

비올라 | 김민경 노은 | 이예성

앙상블 아토

바이올린 | 고은비 손은혜

장아림 탁서연

비올라 | 정희정 정하람

첼로 | 김기량 박예리니



폐막 연주회

앙상블코스모폴리탄 with 피아니스트 심희정

1. 17 (화) 19:30 챔버홀

음악감독 | 이일세

피아노 | 심희정



| 티켓 | 3/2/1만원(공연별 상이)

| 예매 |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 문의 | 051.607.6000 (ARS 1번)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주관 | Marine7 A&M | 협찬 | BNK 부산은행